

메가부동산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VA · MD · DC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mortgage 내이선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미디어 중앙
THE KOREA TODAY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JJ Watch & Jewelry Repair
 금·은
 매입 합니다
703.691.1993
 11706-L Fair Oaks Mall, Fairfax, VA 22033

“국정원 직원 비자 거부가 기술적 문제?” 회청이는 한미관계 ‘결정적 장면’

심층분석

워싱턴 주미한국대사관으로 파견될 국가정보원 소속 핵심 요원들의 외교관 비자 발급과 신분 승인을 미국 정부가 수개월째 보류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한국은 물론 미주 한인사회가 깊은 동요에 휩싸였다.

6일 한국 대표적 언론사의 특종 보도에 따르면, 신임 정보 주재관들의 승인 절차가 멈춰 섰을 뿐만 아니라 워싱턴에서 임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오려던 고위 주재관의 귀임 및 업무 인수인계마저 차질을 빚고 있다.

국정원과 외교부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국정원은 공식 언론 공지를 통해 비자 거부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단지 미국의 강화된 입국 절차에 따른 개인 신상 관련 비자 프로세스상의 문제일 뿐 한미 정보 협력 사안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이종석 국정원장의 미 입국 거부설을 비롯한

외교관 비자 차질 의혹에 대해 "테크니컬한 문제로 본다. 한미 정보 협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워싱턴 현지에서 한미 관계의 미묘한 온도 변화를 매일 체감하는 국제 외교 전문가들과 미주 한인사회의 시각은 냉혹하기만 하다.

지연되는 현상은 전형적인 '의도적 행정 지연(Bureaucratic Stalling)'의 형태를 띤다.

이는 상대국에 직접적인 외교적 단교나 공식적인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 행정적 소요 시간을 명목으로 비자 발급을 미룸으로써 강력한 외교적 불만



“외교관 비자 승인 전면 정체, 의도된 ‘외교적 압박’ 가능성 높아”
“대북 정보 보안 훼손과 자발적 출처 노출, 동맹 근간 신뢰 무너뜨려”

동맹국 간, 그것도 국가 안보의 최전선인 정보 요원들의 공식 외교관 비자가 단순한 '행정 절차' 때문에 연쇄적으로 묶여 있다는 해명을 과연 어떤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가.

외교관 비자(A-1/A-2)는 주권 국가 간 공식 파견 인력에 대해 가장 기본적으로 최우선으로 처리되는 외교적 승인 절차다. 특정 개인의 기술적 결함이 아닌, 파견 인력 전체의 승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정체되고 전임자의 귀임마저

이나 경고를 전달하는 정교하게 계산된 신호다. 따라서 이를 단순한 입국 절차 강화나 개인 신상 검증으로 치부하려는 본국 정부의 태도는 외교적 무능을 감추기 위한 안일한 현실 도피에 가깝다.

국내 언론 보도를 통해 제시된 현안들을 종합해 보면, 이번 비자 보류 사태의 배후에는 복합적인 갈등과 신뢰 균열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사법·통상 갈등의 외교적 연계가 눈에 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쿠방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의 국회 청문회 증언과 이에 따른 위증 고발, 경찰 조사가 이어졌다.

이에 미 하원 법사위는 2026년 7월 '한국의 미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이라는 중간 보고서를 냈고,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미국 기업을 차별한 외국 공무원의 미 입국을 불허 및 추방"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이 하원 법사위를 통과했다.

집 조던 법사위원장이 쿠방 사건을 직접 언급했듯, 미 의회가 통상 갈등을 외교관 비자 거부라는 실질적 제재 수단으로 연계시키고 있음이 입증된 셈이다.

이와 함께 미방첩 당국의 서늘한 시선도 무시할 수 없다. 전직 CIA 대북 분석관 수미 테리 기소 사건 당시 미 연방검찰은 공소장에 주미한국대사관 소속 국정원 요원들과의 접촉 내용을 실명과 함께 적시하며 문제 삼았다. 미국의 방첩 당국이 주미대사관 정보요원들의 활동과 신원에 대해 검증의 잣대를 대폭 높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 이유다.

대북 정보 보안의 훼손 역시 결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평안북도 구성'을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언급한 이후, 미국은 한국에 제공하던 위성 및 기술 수집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다. 정보의 출처와 수집 수단을 보호해야 하는 정보 동맹의 기본 원칙이 흔들리면서, 한국 정부 당국 전체에 대한 미 측의 신뢰 저하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다. 아울러 이종석 국정원장 및 이재명 정부의 안보 기조에 대한 미 측의 구조적 경계심도 짚게 깔려 있다.

김정인 기자

▶ 2편 '국정원 비자 거부' 로 이어집니다

트럼프, 중간선거 ‘깜짝승리론’ …“서프라이즈 지켜봐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중간선거 '깜짝 승리론'을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내 집회에 모인 군중과 열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다. 아무도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곳곳에서 선거 판세를 뒤집고 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텍사스주와 오클라호마주를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거의 매일 지역 순회 유

세를 하고 있다. 11월 3일 중간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 후보와 접전 중인 공화당 후보를 지원하는 동시에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날 게시글은 자신이 직접 선거판에 뛰어든 이후 공화당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선거 판세가 바뀌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는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연방 하원뿐 아니라 상원까지 다수당 지위를 민주당에 넘

겨줄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전망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일축하고, 깜짝 승리론을 내세워 보수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뉴스들도 이(판세 변화)를 알고 있지만 그들은 시청자들에게 진실을 전하지 않겠다"며 "모든 것이 실제 일어나고 있다. 바보 민주당원들



◀네브래스카에서 유세하는 트럼프 [로이터=연합뉴스]

(Dumocrats·'Democrats'와 'Dumb'의 합성어)은 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중간선거 서프

라이즈'(Midterm Surprise)를 지켜봐라"며 공화당이 '깜짝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주장했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 빌
301-279-6960
 원장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물변지알피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교통사고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히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고자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북 “지뢰, 우리와 무관” 또 발뺌…정부, 추가조치 검토

정부가 지난달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폭발의 원인을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결론내리고 지뢰지대 제거 작전을 전격 단행하자 북한은 또다시 책임을 발뺌하며 되레 한국을 위협했다.

군 조사결과발표·제거작전 이튿날 외무성이 반응 정부, 군사·외교 조치 검토…통일부 “평화해법 노력”

정부가 추가 지뢰 제거 작전과 외교적 대응 같은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가운데 북한이 책임을 끝까지 회피하면서도 반응 수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확전을 자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우리는 가장 적대적인 국가를 향한 주권행사에 보다 단호하고 명백한 것이다' 제하 성명을 통해 "이른바 '지뢰 폭발 사건'은 철저한 주권행사인 우리의 남부국경 요새화를 '군사적 침범'으로 매도하고 지연, 저지시키기 위한 음흉한 방해책동"이라고 주장했다.

DMZ 지뢰 폭발에 관한 우리 군의 최

종 조사결과 발표 후 하루만에 나온 북한의 반응이다.

북한은 MDL 이남에 매설된 북한군의 지뢰로 우리 군장병들이 크게 다쳤다는 군의 조사결과가 한국의 '자작극'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조선중앙TV 화면]

남 지뢰 제거 작전에 관해 "우리와 무관한 지뢰를 제거하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말고 우리가 상관할바가 아니"라고 반응했다.

그러면서도 "그 군화발이, 그 불꽃이 우리 영토를 1mm라도 침범한다면 조선의 국경무력은 즉시적이며 강력한 대응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국군이 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지대에 대한 제거 작전 과정에서 북측 지역으로 넘어온다면 무력 대응도 불가했다는 위협으로 해석된다.

남북군사회담 제의도 거듭 일축하면서 국경 요새화 작업을 계획대로 추진

한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외무성은 "자기 영토 내에서 군사주권을 행사하는 문제를 그 어떤 경우에도 적수국과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행사로 주권영역을 수호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군은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발생한 폭발은 북한이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었다고 5일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군은 폭발의 원인이 된 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지대에 대한 제거 작전을 전격 단행했다.

DMZ 북한군 지뢰 폭발에 대응한 우리 군의 첫 실

질적 조치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추가 지뢰 제거 작전 시점에 대해서는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가 상황을 평가하며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 당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등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보리에 가면 안보리 의장 성명이 있을 수 있고, 그보다 더 강한 결의안 채택이 있을 수 있고, 그냥 일방적인 서한을 보내는 것이 있고, 효과를 생각해서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있다"고 외교적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강대 강' 대치가 아니라 '선 대 선'을 통한 근본적인 평화해법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화를 통한 해법을 강조했다.

이어 같은 날 저녁 나온 외무성 성명은 주체사대주의로 볼 때 북한이 MDL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기보다는 상황을 관리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오바마도 중간선거 등판…격전지 ‘전·현직 유세전’

24일 미시간 유세 나서…엘사예드 상원후보 힘심기

중간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Barack Obama 전 대통령이 핵심 격전지인 미시간주 지원 유세에 나서고 민주당 후보들의 선거 광고에 잇달아 출연하는 등 선거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AP통신,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오는 24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인 압둘 엘사예드와 함께 유세에 나설 예정이다.

엘사예드는 민주당 내 급진 진보 세력인 민주사회주의 계열 후보로서 공화당 후보인 마이크 로저스 전 하원의원과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상원 과반 의석을 확보하려면 4석을 추가해야 한다. 상원 탈환을 위해선 게리 피터스 민주당 상원의원의 불출마로 현역 프리미엄이 사라진 미시간 의석을 우선 지켜내야 한다.

엘사예드는 지난 8월 치열한 당내 경선을 뚫고 민주당 후보가 됐지만, 지역 내 흑인 유권자 등 당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WP는 그동안 민주당 내 정책 논쟁과 선거전에 거리를 두며 선별적으로 지원에 나섰던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선거 막판 핵심 격전지에 직접 등판한다는 점에서 미시간 유세가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공화당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시간 지원 유세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지역 유세 일정과 관련해 "약 일주일 반 정도 뒤에 미시간에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역을 놓고 전현직 대통령이 나란히 선거전에 뛰어드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합지 등 35곳을 직접 방문해 지원 유



지난 5일 텍사스의 한 식당을 방문한 오바마 전 대통령 [AP=연합뉴스]

세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주 민주당 지지사 및 상원의원 후보들을 위한 정치광고 24편을 녹화했으며 이 광고들은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번 주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한 워싱턴DC 모금 행사에도 참석한다.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한 유세 일정도 추가될 것으로 전해졌다.

▶ 2편 ‘국정원 비자거부’에서 이어집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및 CIA 내부에서는 이종석 원장의 대북·대중 인식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며, 친중 성향 인사로 평가하고 있다는 전언까지 나온다.

나아가 존 물레나 연방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중 정상 외교와 중국 내 한국 반도체 투자 등이 재명 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 변화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은, 안보 라인 전반에 대한 미 측의 경계심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신경전은 이러한 위기의 엄중함을 잘 보여준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종석 국정원장의 미국 입국 거부설과 화이트 요원의 입국 거부 제보를 거론하며 추궁하고, 조원 장관이 질문 압박에 "SOS를 강구한다"고 언급할 정도로 현안의 민감성은 극에 달해

있다. 현지에서 한미 관계의 안정을 바탕으로 삶을 영위하는 미주 한인 동포들에게 이러한 외교·정보 채널의 마비와 정치적 공방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미국 조야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휘청일 때마다 현지 한인 사회가 느끼는 안보적 불안감과 입지 축소는 실체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보 당국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와 문제 제기에 대해 '사실무근'이나 '외국 보도'라는 프레임을 씌워 사안을 봉합하려 해서는 안 된다. 미국 정부가 행정 절차를 명목으로 외교관 비자를 보류하는 것은 명백히 계산된 외교적 메시지다. 본국 정부는 현지 주재관들의 비자가 왜 정체되고 있는지, 미 측이 제기하는 신뢰 균열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통상 갈등과 정보 보안 문제, 그리고 대외 전략 기조의 불일치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지 않는다면, 정보 동맹의 파열음은 물론 한미 관계 전체가 겹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워싱턴 날씨 (°F)

	8일(목)	81-61		11일(일)	71-66	
	9일(금)	76-60		12일(월)	73-63	
10월 7일(수) 73-57	10일(토)	71-63		13일(화)	74-62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센터빌 중앙장로교회 근처 5 에이커 전원주택 \$1,050,000 **특정** 최신 수명장, 차고 2, 방 3, 와 3

레스틴 성공물 셀러 클럽

타운센터/메트로 근처 \$799,000 **특정** 차고 2, 방 5, 와 3 1/2, 워커아웃 부엌

현던 렉서리

타운홈 \$850,000 **특정** 차고 3, 방 3, 와 3 1/2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MD 지어런트 No. 1 에이전트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쿼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 합니다! (건물 사업체-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 / 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러 페스트연구소 사고 정보공개 촉구... ‘생물무기’ 의심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 페스트 병원체 유출 의심 사고와 관련, 구체적인 정보 부족으로 대응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러시아에 더 많은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6일(현지 시간) 아이슬란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덧붙였다. 루비오 장관은 "만약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하다면 이에 대처할 조처들이 이미 마련돼 있다"며 "우리는 시간 단위로 상황을 매우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러시아가 투명성을 갖고 더 많은 정보를 세계에 공유해 그에

한 뒤 이달 1~2일 사이 숨졌다.

현지 독립매체는 숨진 연구원이 이송된 병원에서 약 200명이 격리 관찰 대상으로 지정됐으며, 격리 조처가 내려진 시내 산부인과 병원도 있다고 보도했다. 루비오 장관은 전날 아이슬란드로 출발하기 전에는 "우리는 이를 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바라고 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한 아시시 자 전 백악관 조 장관은 WP에 러시아 보안당국이 숨진 연구원의 병원 호송에 관여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에 주목하며 "이는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공격용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 시설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 역시 이번 사건이 러시아의 합법적인 페스트 연구로 인해 발생했는지, 생물무기 개발 프로그램에서 비롯됐는지를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현재 숨진 연구원이 무기화 또는 유전자 조작된 세균 연구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는 상황이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연구원은 최근 동물에서 페스트가 자연적으로 발병하는 지역인 러시아-몽골 국경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한다.

루비오 “러, 전 세계에 더 많은 정보 공유해야 할 의무 있어” 미 질병당국 정보 파악 주력...생물무기 연구 규명도 관건

기자회견을 갖고 "아직 모든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측만 늘어놓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러시아가 세계에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해야 할 의무가 분명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더 많이 알수록 더 잘 대응할 수 있다. 어쩌면 별일 아닐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문제일 수 있다"고

파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며 "지금까지는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몇 시간, 며칠 내에 상황이 바뀌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달 25일 발생했다. 러시아 이르쿠츠크 페스트 방역 연구소에서 한 여성 연구원이 페스트 병원체가 든 시험관을 깨뜨렸고, 이 연구원은 같은 달 29일 중증 폐렴 증상으로 입원

말히 주시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불안해할 사안은 아니지만 주목하고 계속 지켜볼 사안이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만, 이날은 러시아의 정보 제공 부족을 지적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루비오 장관 뿐 아니라 미 당국자들은 이번 사고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질병통제예방센

터(CDC), 국무부, 질병예방대응본부(ASPR)와 다른 기관들이 이번 사고를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달 보도했다.

아울러 미국의 전·현직 당국자들은 해당 연구소에서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높이거나 약물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는 '기능획득' 기법을 활용해 페스트 표본을 변형시키려 했는지 파악하기를

트럼프, 포트후드 총기난사범에 ‘총살형’ 승인

81년 만에 미군 총살형...미군 사형집행은 1961년 교수형이 마지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텍사스 포트후드 미군기지 총기난사범에 대한 총살형을 승인했다.

총기난사범 니달 말릭 하산은 2009년 사건 당시 미 육군 소령 계급의 군 의관이었고, 미군이 자국 군인을 대상으로 총살형을 집행하는 것은 2차 대전 이후 처음이라고 CNN 방송은 전했다. 손 파넬 미 국방부(전쟁부) 수석 대변인은 5일 엑스(X·옛 트위터)에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2009년 포트후드에서 무장하지 않은 미군 병사들에게 총격을 가한 자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 하산에 대해 미 육군 총살형 집행을 권고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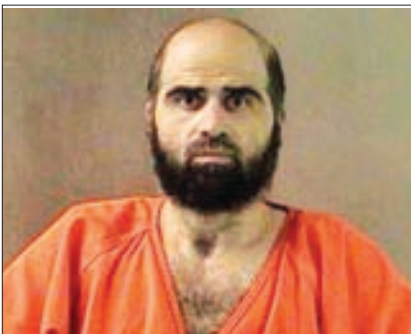
이는 지난 2009년 11월 5일 포트후드에 근무하던 정신과 군의관 하산(당시 소령)이 "알라후 아크바르"(아랍어로

신은 위대하다는 뜻)라고 외친 뒤 무차별로 총기를 난사해 장병과 민간인 13명이 숨지고 32명이 부상한 사건이다.

이슬람 신도인 하산은 당시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앞두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자생적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고, 이 사건은 미국 내 최악 총기 난사 사건의 하나로 기록됐다. 파넬 대변인은 하산의 총살형 일시와 장소를 육군 장관이 정할 예정이라며 "하산에게 심판의 날이 마침내 왔다"고 밝혔다.

6일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에서 총살형 집행은 드물다. 아이다호, 오클라호마, 유타, 사우스캐롤라이나, 미시시피 등 소수의 주(州)에서만 허용된다.

미군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1961년 4월 13일 미 육군 이등병 존 베틀을



2009년 포트후드 미군기지 총기난사범 니달 하산 [로이터-연합뉴스]

강간·살인미수로 교수형에 처한 뒤 65년 만이다. 미군이 마지막으로 집행한 총살형은 1945년 11월 9일 소총부대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사형제도 지지자였다. 집권 1기 때 17년 만에 연방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임기 종료 직전 사형수 13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병역기피 해외체류 10명중 6명 미국 숨어

5년간 위반 929명중 794명 ‘기소 중지’ 처벌 공백 논란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해외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 10명 중 8명이상이 처벌 없이 방치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 국가 별로 보면 미국이 전체의 64%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3일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로 집계된 전체 929명 중 794명(85.5%)이 올해 7월 31일 기준 ‘기소(수사) 중지’로 분류됐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158명 중 130명(82.3%) △2022년 185명 중 156명(84.3%) △2023년 196명 중 179명(91.3%) △2024년 197명 중 164명(83.2%) △2025년 193명 중 165명(85.5%)이었다. 어느 발생연도를 보더라도 기소(수사) 중지 비중이 80%를 넘었다. 같은 기간 929명의 체류국가를 살펴보면 미국이 595명(64.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 62명(6.7%), 일본 60명(6.5%), 캐나다 45명(4.8%), 필리핀 30명(3.2%), 호주 26명(2.8%) 순이었다.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12명(1.3%), 영국은 5명(0.5%)이었다. 이외 국가들에 머무르는 인원은 총 82명(8.8%)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27세가 502명(54.0%)으로 929명의 절반 이상이였다. 이어 28세 157명(16.9%), 30세 이상 121명(13.0%), 26세 60명(6.5%), 29세 59명(6.4%), 25세 30명(3.2%) 순이었다.

민 의원은 “병무청과 수사기관, 외교부 사이의 정보 연계와 후속 조치 체계를 점검하겠다”며 “현지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협업 체계 보강 방안도 정부와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오니!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오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는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1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2 최신형 X-Ray 완비
- 3 교정 및 물리치료
- 4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프렌즈 데이케어

“부모님은 행복하고 가족은 안심하는 프렌즈 데이케어에서 건강과 웃음, 친구를 선물하세요!”

800-350-3147 프렌즈 홈케어
571-424-7527, 7528 프렌즈 데이케어
8003 Forbes Place, Springfield, VA 22151
friends@friendshealthcareteam.com

영업시간 월 ~ 토 (주 6일) 오전 8시~오후 2시



세금 줄이고, 노후 준비까지!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 오너분들을 위한 똑똑한 절세”

지금은 절세가 곧 생존이고 경쟁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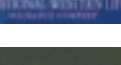
【 은퇴 후 소득에 대한 미리하는 세금플랜, Mega Backdoor 등 Roth Conversion 을 이용한 절세 전략! 】

왜 이 플랜이 필요할까요?

개인 401(K) 보다 훨씬 높은 납입 한도!
사업주에게 조기 은퇴 자금 마련 기회 제공!
세금 공제와 은퇴 준비를 한 번에!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직원이 없는 부부 자영업자: Solo 401(K)로 세금 공제 + 은퇴 플랜을 동시에!
고소득 전문직 오너 (직원 10 ~ 15명 이하): 큰 세금 혜택 + 은퇴 플랜 마련!



페어팩스 VA 3701 Pender Dr. Suite 160
Fairfax, VA 22030

리치몬드 VA 14321 Winter Breeze Dr. Suite 15
Midlothian, VA 23113

엘리콧 시티 MD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페이트빌 NC 5085 Morganton Road, Suite 300
Fayetteville, NC 28314

보스턴 MA 100 Summit Drive,
Burlington, MA 01803

로리 문

Cell. 703.895.7648

Office. 703-865-8788
send2lorimoon@gmail.com

재정 플랜 전문가 & 연방 세무사

남극얼음으로 우주 관측 ‘노벨물리학상’

남극 ‘아이스큐브’ 뉴트리노 관측소 책임자 프란시스 할전

2026년 노벨물리학상은 뉴트리노(중성미자) 관측 연구를 통해 우주현상 관찰을 위한 새 토대를 마련한 벨기에 태생 미국 물리학자 프란시스 할전(82 사진)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아이스큐브(IceCube) 뉴트리노 관측소에 대한 결정적 기여와 천체물리학적 기원의 고에너지 뉴트리노의 발견"의 공적을 인정해 노벨 물리학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할전은 남극 아문센-스콧 남극점 기지에 있는 '아이스큐브 뉴트리노 관측소'의 연구 책임자다.

2010년부터 가동 중인 이 관측소는 세계 최대 규모의 뉴트리노 검출 장치다. 할전은 현재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의 석좌교수 겸 이 대학의 기본입자 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마크 피어스 노벨 물리학 위원회 위원장은 "할전은 우리에게 환상적인 관측 장비를 선사한 국제 연구진과 엔지니어 팀을 이끌어 왔다. 그의 끈기와 과학적 비전은 새로운 종류의 천문학을 위한 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우주에서 날아오는 초고에너지 뉴



리노의 관측을 통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우주 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뉴트리노는 다른 입자들과 달리 일반적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으므로, 방향을 바꾸거나 에너지를 잃지 않고 매우 먼 우주에서 지구에 도달한다.

이 때문에 뉴트리노는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귀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만큼 관측이 극도로 어렵다. 뉴트리노가 일반 물질과 반응하는 경우가 워낙 드물고 거의 모두가 '그냥 통과'해버리기 때문에, 뉴트리노를 관측하려면 엄청난 양의 일반 물질을 정

밀하게 관찰해 센서로 정밀 신호를 검출할 수 있어야만 한다.

할전은 1988년에 남극에서 뉴트리노 관측을 하자는 비전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뉴트리노가 원자핵과 충돌하면 섬광이 발생하는데, 투명한 빙하 얼음 속에 설치된 센서를 이용하면 이런 섬광을 추적할 수 있다"며 "남극의 얼음은 다양한 간섭 요인이 없고 지질학적으로 안정적이며 지진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할전과 그의 구상은 곧 다른 연구자들의 지지를 얻었으며, 불과 몇 년 후 얼음 속 센서를 이용한 예비 실험이 이뤄졌다.

초고에너지를 지닌 우주 뉴트리노는 매우 희귀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의 충돌을 관측하려면 막대한 양의 얼음이 필요하다.

아이스큐브 관측소는 1㎞ 규모, 즉 한 번의 길이가 1km인 정육면체와 맞먹는 규모의 얼음으로 이뤄져 있으며, 검출 센서들은 1천450~2천450m 깊이의 얼음에 설치돼 있다.

“성폭행 부실대응에 책임”

코넬대 교수진, 총장 불신임 추진



2년 전 발생한 학생 성폭행 사건에 대한 부실 대응으로 위기에 처한 미국 코넬대에서 이번에는 교수진이 총장을 상대로 불신임 투표를 추진하고 나섰다.

6일 CNN과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코넬대 교수평의회 소속 위원들은 대학 지도부의 성폭력 사건 대처 방식을 비판하며 전날 저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 초안에는 "교수 평의회는 코넬대에서 계속되는 성폭력 위기에 대해 대학 본부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마이클 코틀리코프 코넬대 총장(사진)을 비롯한 대학 행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책임을 묻고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14일 열리는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교수평의회는 코넬대의 주요 입법 자문·검토 기구로, 75명 이상의 교수 대표로 구성돼 있다.

현재 교수평의회 위원 약 40명이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틀리코프 총장과 대학 지도부는 독립적인 외부 로펌 조사 수용과 진상 규명을 약속했으나, 교수진의 불신임

추진으로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평의회 위원 중 한명인 아리아나 김 음대 교수는 NYT에 이번 조치가 코넬 지도부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며, 사실상 대학 운영 자격이 없다는 것임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코넬대 재학생이었던 한 여성은 2024년 10월 학내에서 남학생 7명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최근 대학과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여성은 당시 대학과 검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나, 형사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고 가해자들도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내 구성원들은 대학 측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축소, 방관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AI가 일자리 없앤다는데...경제학자들은 “글썄”

엔트로픽 CEO·빌 게이츠 등 경고 불구
“AI 때문에 직원 감축” 답한 기업 1% 불과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일자리가 줄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이러한 전망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AI 선도 기업 중 하나인 엔트로픽 등에서 AI로 인해 일자리가 많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AI의 발전으로 사무직 신입사원 수가 2030년까지 절반으로 급감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도 올바른 정책이 없다면 10년쯤 뒤에는 현재보다 일자리가 훨씬 적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학자들은 AI로 일자리 유형이 급격하게 바뀌고 AI 발전의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단지 AI 때문에 일자리 자

체가 줄 것이라고 전망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대다수 경제학자는 과거 자동화 열풍이 불 때 '미국 일자리의 절반이 10년 이내에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지만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면서 IT업계의 일자리 감소 전망에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AI의 일자리 영향을 연구하는 스테인 브루크는 "AI가 크게 발전했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고용률이 여전히 최고치에 가깝다"고 말했다.

OECD가 13개국의 고용주 8천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AI를 도입한 기업의 10%만이 직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원 감축의 주요 사유가 AI라고 답한 비율은 1%에 그쳤다.

브루크 연구원은 AI 발전으로 기술 관련 직종의 신입사원 채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반박했다.

그는 "젊은 대학 졸업생의 실업률이



악화된 것은 2015년 이후 이어지는 장기적인 추세"라며 "대학 졸업생의 초과 공급, 재택근무 증가, 고급리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예일대학교 예산연구소도 AI 도입이 가장 왕성한 미국에서조차 AI가 졸업생들을 일자리에 밀어낸다는 명확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런던정경대(LSE) 공공정책대학원의 루이스 개리커노 교수는 "모든 직업은 다양한 업무들로 구성된다"며 번역 등 일부는 분리해서 자동화하는 것이 비교적 쉽지만 간호 업무나 정치 같은 분야는 상호 관계에 기초한 것이어서 자동화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부유층의 ‘공룡 화석’ 수집 열기

최고가는 5천만달러 넘어



최고가는 6천만달러가 넘을 정도이지만 부유층의 공룡 화석 수집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미국 뉴욕 소더비는 이달 말 육식공룡인 나노티라누스의 희귀 화석을 경매에 내놓을 예정이다.

소더비 측은 '조디'(Jodi)라는 이름의 이 공룡 화석이 600만~900만달러(약 80억7천만~121억원)에 낙찰될 것으로 예상했다.

'거스'(Gus)라고 불리는 대형 육식공룡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화석이 공룡 화석으로는 역대 최고가인 5천10만달러(약 674억원)에 낙찰된 지 3개월 만에 이번 경매가 진행된다.

이번 경매에 나오는 나노티라누스 화석은 지난 2019년 미국 몬태나주에서 발견된 것이다. 나노티라누스 화석이 시장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룡 화석에 대한 부유층의 수집 열기는 지난 2024년 미국 헤지펀드 업계의 큰 거물인 켄 그리핀이 당시로는 최

조디라는 이름의 나노티라누스 화석(소더비 페이스북 계정 게시물 화면 캡처)

고가인 4천460만달러(약 600억원)에 초식 공룡 스테고사우루스 화석을 사들이면서 크게 부각됐다.

앞서 미 할리우드 유명 배우인 리어나도 디캐프리오와 니컬러스 케이지가 지난 2007년 공룡 두개골 화석을 놓고 경매에서 경쟁을 벌여 주목받기도 했다. 그리핀이 낙찰받은 초식 공룡 스테고사우루스 화석은 뉴욕의 미국 자연사박물관에 전시돼 있지만, 3개월 전 판매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화석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달 말에 경매에 부쳐지는 화석의 주인공인 나노티라누스는 80년 넘게 고생물학계에서 논쟁이 됐던 공룡 개체이다.

교통사고 최대보상 끝까지 간다! 신성재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 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301.775.2774
9711 Washingtonian Blvd. Ste 550
Gaithersburg, MD 20878



FORTIS LEGAL GROUP
— STRENGTH IN ADVOCACY —



VA ‘직업 훈련 프로그램’ 전국 1위 차지

지역개발프로그램, 조사 발표... 전국 기업들 버지니아에 ‘눈독’

버지니아주의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 기업 유치 경쟁에서 다시 한번 전국 1위에 올랐다.

주요 전국 무역 간행물인 지역개발 (Area Development)은 5월 2026년 ‘사업하기 좋은 주’ 보고서에서 버지니아주를 인력 교육 프로그램 부문 1위로 선정했다.

이러한 인정은 버지니아주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는 적격 기업에 맞춤형 채용 및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버지니아 인재 가속화 프로그램(Virginia Talent Accelerator Program)을 높이 평가한 결과이다. 이 프로그램은 2019년 출범 이후 주 전역에서 2만2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이번 인력 개발 인정은 비즈니스 시설(Business Facilities)이 올여름 버지니아주를 맞춤형 인력 교육 부문에서 4년 연속 1위로 선정된 데 이은 것이다. 캐리 체너리 버지니아 상무장관은



버지니아는 2026년 기업 순위 인력 교육 프로그램 1위를 차지했다. [사진 VDEP 제공]

“인력은 기업의 입지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버지니아주는 전국적으로 그 우수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에비게일 스펀버거 주지사는 “버지니아는 전국 최고의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산업계가 이를 주목하고 있다”며 “인재 육성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입사 첫날부터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버지니아를 선택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를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개발’은 1965년부터 기업의 입지 선정 및 이전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 2026년 순위는 기업의 입지 및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20개 범주에 걸쳐 각 주를 평가한 50명의 입지 컨설턴트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다.

직업 훈련 부문에서 전국 1위에 오른 버지니아주는 종합 순위에서는 조지아,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버지니아 경제개발파트너십 제이슨 엘 쿠비 CEO는 인재 가속 프로그램의 가치는 표준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의 특정 운영에 맞춰 채용 및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김성한 기자

페어팩스, 고용자 수 4년만에 ‘최저’

8월 실업률 3.3% 나타나
노동력개발 진흥부 발표

전반적인 실업률은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의 8월 민간인 고용자 수는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버지니아주 노동력 개발 및 진흥부가 지난 달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취업자 수는 60만7418명, 구직자 수는 2만842명으로 실업률은 3.3%를 보였다.

이는 전년도 3.4%보다 약간 개선된 수치이지만, 이러한 개선에는 한 가지 단서가 붙는데, 주정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페어팩스 카운티의 8월 민간 고용 인구는 총 62만8260명으로, 62만6899명이었던 2022년 4월 이후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역 인력 개발 관계자들은 팬데믹과 예산 삭감이라는 이중고가 지역 전반의 노동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여기에 주택 가격으로 인해 높아진 생활비가 더해지면서 일부 지역 주민들이 더 저렴한

환경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다. 한인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는 페어팩스 시의 8월 실업률은 3.1%로 전년과 동일했으며, 민간 부문 종사자는 1만3803명이고 구직자는 424명이었다. 전체 노동 인구는 2023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페어팩스 카운티의 실업률은 연방 정부 섯다운으로 데이터가 보고되지 않은 2025년 10월을 제외하고 15개월 동안 3% 이상을 유지했다.

8월 북버지니아 지역의 실업률은 3.3%를 기록했는데, 약 169만 명이 취업했고, 5만7300명이 구직 활동을 했다. 지난 1년간 실업률은 3.2%에서 3.7% 사이를 유지했다.

메트로 워싱턴 8월 실업률은 3.8%로 전년 동기 4.2%에서 하락했으며, 민간 부문 취업자는 344만 명이고, 구직자는 약 13만1000명이다.

메트로 워싱턴 고용률은 전년 대비 개선되었지만, 연방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비농업 부문 고용 수치에 따르면 이 지역은 전년 대비 전체 고용 감소폭(6만6000명)과 감소율(2%) 모두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다.

김성한 기자

메트로 재정난 심각...요금 ‘11.1% 인상안’ 검토

물가상승 대응방안 일환... 12월 고객 공청회 개최 예정

워싱턴 수도권 교통국(MMTA)은 메트로레일과 버스 이용 요금을 11.1%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해 귀추가 주목된다.

MMTA는 5일, 이것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트로는 2년 넘게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는데, 이번 제안으로 예산이 4000만 달러에서 4500만 달러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메트로레일의 경우 현재 2.25달러에서 6.75달러 사이인 요금이 거리에 따라 2.50달러에서 7.50달러로 오를 예정이다. 메트로버스 요금도 2.50달러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메트로는 워싱턴DC를 비롯해 메릴랜드,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5세에서 18세 사이의 어린이들에게 무료 승차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이 계획에는 70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약 100만 건의 추가 승차 횟수를 기대할 수 있다. 4세 이하는 이미 부모와 동반 시 무료로 탑승을 할 수 있다.

승객 수를 늘리기 위한 다른 방안으로는 메트로 리프트 이용 자격 확대, 11개 공휴일에 주말 요금 적용, 주말 및 심야 시간대 2.50달러 단일 요금제 도입 등이 있으며, 수익을 늘리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평일 심야 할인을 없애



160만 달러의 추가 수익을 얻거나, 주말 및 심야 운행 요금 상한선을 3.75달러로 인상하여 700만 달러의 추가 수익을 얻는 방법이 있다.

이와 관련, WMATA 이사회는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2월에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몽고메리 ‘거리 점거 시위’ 5천달러 벌금

공공안전위원회 법안 통과
기존 1000달러서 크게 인상

5000달러로 인상하면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거리 점거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최대 5000달러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 공공안전위원회는 5일 법안27-26을 전체 의회로 넘기기로 결정했는데, 이 법안은 운전자와 구경꾼들이 경주, 과속, 곡에 운전을 위해 교차로를 막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제안된 법안은 참가자와 주최자에게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던 루에드케 의원은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더 높은 벌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벌금을

대단 프랭크 몽고메리 경찰국장 대행은 “거리 점거 시위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법안은 전체 회의 통과와 군수 서명 절차가 남아 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드론 프로그램 확장’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하는 동시에 대책 강구에 나섰다.

몽고메리 경찰은 2023년에 드론을 도입했으며, 이후 5000건 이상의 출동 요청에 대응했고, 경찰 순찰차보다 75% 더 빠르게 사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드론 12대로 기종을 업그레이드했다.

김성한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280, Ellicott City, MD 21043

HYUNS HOMECARE
Senior Services
Always With You!
703-507-2492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701 Pender Dr. #160, Fairfax, VA 22030

방앗간 / 반찬 / 잔치음식 전문점

낙원떡집
케이터링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Coming Soon

703-505-7766
7412 Stream Walk Ln. Manassas, VA 20109 (Oh! Market 안에 위치)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Albert Kim 보험
albert@w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퀄리티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여성용 골프 의류,
가방 등 판매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장금(미락조 물)
헤일리노래방
미락조 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을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미래가 두려워” 학교 앞 시위 프랑스 학생들

"운 좋게도 우리 학교는 사정이 좋은 편이에요. 하지만 수많은 학교가 그렇지 못하단 걸 알죠", "기후변화, 전쟁, 인공지능(AI)··· 내가 어떤 세상에서 자

이들의 시위는 직접적으로 교육 인프라 부족이라는 열악한 교육 여건으로 인해 촉발되긴 했으나, 근본적으로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 국가 재정

교육개선 요구 전국 행진, 교사·학부모도 동참···“파리만 4만명”
“1천800곳 휴교”···시위 격화에 학생 215명, 경찰관 715명 부상

라고 있는 건가 미래가 너무 두렵습니
다.” 프랑스 파리 마레지구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17세 학생 아델과 사크레는 6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이렇게 말했다. 이 학교는 부촌에 있고 교원, 시설 등이 넉넉한 편이지만, 이들은 학교 밖으로 나서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달 중순 시작된 학생 시위가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불안과 AI 붐이 부추긴 채권시장 불안, 정치 불안정 등 사회의 혼란상을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불안하고 불투명한 미래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교육 현장의 불만을 총체적으로 수집하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체를 호소했으나 시위는 커지고 격해지고 있다.



6일 파리에서 시위에 나선 학생들

[AFP=연합뉴스]

대규모 시위가 조직된 6일에는 수도 파리뿐 아니라 마르세유, 리옹, 릴, 낭트, 스트라스부르, 렌 등 전국 도시들에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거리 행진에는 파리에서만 4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주최 측은 예상한다.

오전부터 곳곳에 학생들이 몰려들

어 시위를 시작하며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많은 10대 청소년이 플래카드와 연막탄을 손에 들었다. 시위자들이 학교 앞이나 거리에 진 바리케이드에 불을 붙이고 진압 경찰관들이 이를 끄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 경찰은 군중 해산 및 진압을 위한

최루탄, 물대포 등도 투입하고 있다. 마르세유에서 시위에 참여한 중인 학생 콜린은 BBC에 정부의 허울뿐인 약속이 신물 난다며 자신이 다닌 여러 학교가 갈수록 질이 떨어지고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가는 모습에 불만이라고 말했다. 스트라스부르의 대입 준비생 위고는 로이터 통신에 “엘리트층과 우리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물론이고, 시위에 참여하는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와 가족들이 거리로 나선 모습이다. 경찰 과잉 진압 논란이 더해져 학생들의 분노를 부추겼다. 지난달 30일 16세 학생이 오른쪽 시력을 잃었고 지난 5일 15세 학생이 손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뇌 총리는 각 부처에 학생들의 주요 요구사항을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프랑스는 막대한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로 긴축적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어 교육 부문에 대대적인 투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러 신형드론에 우크라 위기감···F-16·탄약 확보 총력

탄도미사일에 이어 부담 가중···F-16 전력 소모 지적도

러시아가 탄도미사일에 더해 요격이 어려운 제트추진형 드론까지 동원해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우크라이나가 F-16 무장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에 동맹국과의 협력 상황을 설명하며 “여기에는 F-16용 탄약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벨기어로부

터 F-16 전투기 3대와 탄약을 지원받기로 했다. 스페인 등도 F-16 탄약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우크라이나가 확보한 F-16과 탄약은 최근 급증한 러시아의 제트추진 드론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러시아가 발사한 제트 추진 드론은 올해 6월 350대에서 8월 2천800대로 급증했다. 최근 키이우 도심부의 정부 청사와 교량을 타격한 것도 대부분 제트추진

드론이다. 러시아의 제트 추진 드론은 이전 모델보다 최대 3배 빠른 시속 400~600km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어 기존 방공망으로 요격이 쉽지 않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밝힌 제트 추진 드론 격추율은 60% 수준으로 기존 드론 격추율 90%를 크게 밑돈다. 제트추진 드론은 이미 러시아의 탄도 미사일 공격에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 군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올해 2월 중동 사태 이후 패트리엇 등 요격미사일 재고가 소진되면서 우크라이나는 연일 동맹국에 방공망 지원



루마니아 F-16 전투기 [AP=연합뉴스]

을 호소하고 있다. 하루 수백 대씩 몰려오는 러시아의 드론에 대응하기 위해 전투기가 매번 출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반복적인 요격 임무로 순항미사일 등 임무에 대응해야 할 F-16의 전력도 소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저스틴 브롱크 선임 연구원은 “우크라이나 공군이 처음으로 서

방 항공기와 훈련된 승무원을 확보한 2024년 중반 이후 드론을 상대로 전투기를 사용하면서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기계 비행시간과 공대공미사일을 소모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중심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세를 집중하면서 양측의 충돌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시진핑 방미 때 기업 만남 등 제안···미국상당수 거부”

SCMP 보도···“미국, 상호주의 원칙 들어 거절”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국 측에 기업인 및 대학생들과의 만남 등 다양한 일정을 제안했으나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6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이 11년 만에 이뤄진 시 주석의 지난날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실제 성사된 것보다 훨씬 폭넓은 일정을 추진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측은 시 주석이 방미 기간 미국 기업인들과 만나는 행사를 비롯해 뉴욕이나 워싱턴의 대학을 방문해 학생들을 상대로 연설하

는 방안 등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 또 양국 주요 기술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인공지능(AI) 관련 대화를 여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과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상호주의’ 원칙 등을 들어 상당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미국 측은 시 주석이 자신의 입장을 대중에게 직접 알릴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도 경계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중 기술기업이 참여하는 AI 대화도 국가안보 문제 등을 둘러싼 양측



이견으로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 의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도 있었다. 중국은 무역 문제뿐 아니라 10여 개의 외교·안보 현안을 정상회담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은 이란 문제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 등 일부 현안으로 논의를 좁혔다고 SCMP는 전했다.

독일 전 대외정보기관 수장, 간첩 혐의 체포

연방검찰 “외국 정보기관에 기밀 넘기려 해”

독일의 대외 정보기관인 연방정보국(BND) 전직 수장이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독일 dpa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검찰은 아우구스트 하닝(80) 전 BND 국장을 반역 미수 및 외국 정보기관의 요원으로 활동한 혐의 등으로 불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수사 당국은 그가 외국 정보기관에 독일의 민감한 정보를 넘기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쥐트도이체차이퉁 등 현지 매체는 해당 외국 정보기관이 러시아 기관은 아니라고 보도했다. 하닝 전 국장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BND를 이끌던 인물로, BND 이



간첩혐의로 체포된 아우구스트 하닝 전 독일 연방정보국 수장 [로이터 연합뉴스]

후에는 민간 안보 자문역으로 활동했다. 하닝 전 국장이 BND를 떠난 뒤 그에게 기밀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BND의 전직 직원 1명도 함께 체포됐다고 dpa는 전했다.

메가 부동산

문미애

대표 / CEO
Principal Broker

“30년 이상 경력의
부동산 전문가!”

703.534.4989

megarealty@gmail.com

VA, MD, DC

Mega Realty & Investment, Inc.

4600 John Marr Dr, #201, Annandale, VA 22003

월~목요일 11AM~2PM

LUNCH SPECIAL

리라면 +
리김밥 콤보

\$9.99

11213-K Lee Hwy, Fairfax, VA 22030
(페어팩스 월마트 옆 쇼핑몰)

미국 리김밥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

파트너 모집

가맹 상담 및 문의

franchise@leegimbapus.com
703-563-0971

메디케어

변경기간: 10월 15일 ~ 12월 7일

오바마 헬스케어

등록기간: 11월 1일 ~ 2027년 1월 30일

“개인보험, 그룹보험 플랜변경 및 새로 등록도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사업체보험



집보험



생명보험

21년의 경험으로 여러분과 함께한 KWAK & CHANG FINANCIAL INC.

에이전트 모집

건강보험 (치과, Vision), 401K, Pension 제공
경험없으신 분 환영, 라이선스 도와드립니다.



대표 **곽민우**

“언제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곽민우 종합보험

KWAK & CHANG FINANCIAL INC.

Office : 703-750-2205, 2206

Fax : 703-750-2207

Email : kcfinancial.info@gmail.com

7369 McWhorter Pl. #420, Annandale, VA 22003



엘리콧시티 · 락빌 2개 지점

편한나라 척추신경전문병원

편한위치 · 편한치료 · 편한척추

www.carefreelandusa.com



Dr. 조규창

- 상문고 졸업
- 대전보건대 졸업
- 전 Occupational Therapist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Certified in Activator Method Technique
- Certified in Active Release Technique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
- Maryland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Magna Cum Laude (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 과정 전액 장학생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 Laude from Life Univ.
- Certified in Cox Technique, Low Back Pain
- Certified in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aryland
- Completion of Asian Body work Therapy Program

주요 치료 영역

자동차 사고
후유증



목·어깨·등 통증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직

척추 디스크
통증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좌골신경통

두통, 목, 허리
통증



만성 두통
목/허리 통증
신경 압박 통증

손, 발 통증 및
저림



손목 터널 증후군
손/발 저림
관절 통증

어깨 결림 및
통증



오십견
회전근개 통증
어깨 결림

만성
근육통



근육 피로
만성 통증
근육 불균형

취급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치료 항목

-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 통증 치료 (Dry Needling)
- ✓ 마사지 치료 (LMT 라이선스 소지자)
- ✓ 체외충격파 치료 (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
- ✓ 신체균형강화 장치기법 (Body Balance Enhancement Device)
-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교통사고 후유증치료

빠른 치료가 후유증을 막고, 빠른 회복을 만듭니다!

엘리콧시티 (410)480-2331
3201 Rogers Ave. # 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279-6960
611 Rockville Pike #150
Rockville, MD 208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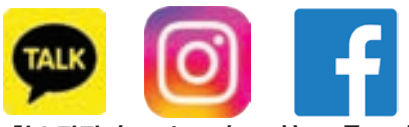
www.carefreelandusa.com

문의전화 703.658.1717 / www.hanstravel.com / hanstravelusa@gmail.com / 버지니아 본사 7601 Little River Tnpk., #201 Annandale, VA 22003



데이빗한 재키조 조앤한 세라정 애나김 김문배

HANS TRAVEL



한스관광 hanstravelusa Hans Travel 친구 추가! 실시간 상담 가능



버스가 필요할때?
한스관광에 문의하세요!
HANS WORLDWIDE

인솔자가 함께하는 한스여행

항공사 공식 대리점

KOREAN AIR AIR PREMIUM DELTA TURKISH AIRLINES

2026년

그리스 & 튀르키예

12박13일 10/26(월)~11/7(토)
\$3,690 +항공
인솔자:조앤한

프리미엄

2027년

코스타리카 여행

5박 6일 2/7(일)~2/12(금)
\$2,290 **워싱턴출발 직항항공포함**
인솔자:애나김

2027년

이집트 & 나일강 크루즈

9박10일 2/16(화)~2/25(목)
\$4,290 +항공
인솔자:데이빗한

2026년

항공료 별도

10/18 (일)~10/27(화) 스위스 알프스 기차여행	마감 마감 마감 마감 마감
10/8(목)~10/17(토) 캐나다, 뉴잉글랜드 단풍 크루즈	
10/12(월)~10/23(금) 포르투갈 & 스페인	
10/12(월)~10/24(토) 그리스 & 튀르키예 성지순례	
10/18(일)~10/27(화) 알프스 기차 파노라마 기차	
10/26(월)~11/07(토) 그리스 & 튀르키예	
12박13일 \$3,690	조앤한

2027년

파타고니아

9박10일 3/12(금)~3/21(일)
\$7,095 +항공
인솔자:재키조

2027년

일본, 벚꽃따라 맛여행

12박13일 3/29(월)~4/10(토)
\$5,995 +항공
인솔자:재키조

일본 찍고, 한국까지!

2027년

설레는 한국의 봄 나들이

7박8일 4/11(일)~4/18(일)
\$2,590 +항공
인솔자:재키조

서울-춘천-남이섬-가평-평창-원주-안동-영덕-포항-경주-거제-외도-산청-서울

2027년

모로코 & 사하라 사막

9박10일 3/17(수)~3/26(금)
\$3,690 +항공
인솔자:조앤한

2027년

포르투갈 & 스페인

11박12일 4/11(일)~4/22(목)
\$3,790 +항공
인솔자:애나김

2027년

동유럽 하이라이트

9박10일 4/18(일)~4/27(화)
\$3,890 +항공
인솔자:세라정

체코/폴란드/슬로바키아/헝가리/오스트리아

2026년

항공료 별도

01/18(월)~01/23(토) 코스타리카 골프 투어	5박6일 마감임박! \$2,490 항공포함 세라정
01/18(월)~01/28(목) 신비의 인도여행	10박11일 \$3,590 조앤한
02/07(일)~02/12(금) 코스타리카	5박6일 \$2,290 항공포함 애나김
02/16(화)~02/25(목) 이집트 & 나일강 크루즈	9박10일 \$4,290 데이빗한
03/12(금)~03/21(일) 파타고니아	9박10일 \$7,095 재키조
03/17(수)~03/26(금) 모로코 & 사하라 사막	9박10일 \$3,890 조앤한
03/29(월)~04/10(토) 일본 하이라이트	12박13일 \$5,995 재키조
04/11(일)~04/18(일) 고국 하이라이트	7박8일 \$2,590
04/01(목)~04/09(금) 포르투갈 골프	8박9일 \$4,190 세라정
04/11(일)~04/22(목) 포르투갈 & 스페인 여행	11박12일 \$3,790 애나김
04/18(일)~04/27(화) 동유럽 하이라이트	9박10일 \$3,890 세라정
04/27(화)~05/09(일) 프랑스 하이라이트	12박13일 \$4,990 애나김
04/28(수)~05/06(목) 중국 실�크로드 여행	8박9일 \$3,790 조앤한
04/28(수)~05/13(목) 중국 실�크로드 & 양쯔강 크루즈	15박16일 \$6,450
05/06(목)~05/13(목) 양쯔강 크루즈+ 상해, 강남 수향마을	7박8일 \$2,820
05/01(토)~05/09(일) 잉카의 신비, 페루 하이라이트	8박9일 3,595 재키조
05/09(일)~05/19(수) 서유럽 (프랑스+스위스+이탈리)	10박11일 \$3,690 세라정
05/11(화)~05/23(일) 그리스 & 튀르키예	12박13일 \$3,690 조앤한
05/30(일)~06/10(목) 알프스 파노라마 하이라이트	11박12일 \$5,995 조앤한
06/17(목)~06/27(일) 코카서스 실�크로드 여행	10박11일 \$4,250 재키조
06/18(금)~06/26(토) 그리스 섬 & 몰타 크루즈 여행	8박9일 \$3,290 (오션뷰) 인솔자
06/21(월)~06/27(일) 캐나다 록키 골프	6박7일 \$3,190 세라정
06/24(목)~07/07(수) 북유럽 & 발틱	13박14일 \$6,995 조앤한
07/11(일)~07/18(일) 아이슬란드 하이라이트	7박8일 \$6,595 재키조
07/26(월)~07/31(일) 캐나다 록키	5박6일 \$2,290 항공포함 애나김
08/06(금)~08/19(목) 아프리카 사파리+빅토리아 폭포	13박14일 \$12,890
08/06(금)~08/13(금) 아프리카 사파리 투어	7박8일 \$5,950 조앤한
08/30(월)~09/06(월)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Partial 오션뷰 발코니)	7박8일 \$2,390 항공포함 인솔자
09/02(목)~09/10(토)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트레킹5일)	8박9일 \$2,890 세라정
09/08(화)~09/19(토) 영국 일주 + 아일랜드	11박12일 \$6,950 재키조
09/12(일)~09/21(화) 이탈리아 & 톨로미티 여행	9박10일 \$3,890 애나김
09/25(토)~10/03(일) 이스터 아일랜드, 칠레 & 산티아고	8박9일 \$6,590 재키조
09/27(월)~10/10(일) 동유럽 &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독일	13박14일 \$4,790 애나김
10/11(월)~10/22(금) 포르투갈 & 스페인	11박12일 \$3,790 세라정

2027년 인솔자 동행 크루즈 여행

그리스 섬 & 몰타 크루즈

몰타-로도스-산토리니-미코노스
8박9일 6/18(금)~6/26(토)
(크루즈7박8일)
오션뷰 \$3,290 +항공

알래스카 크루즈

워싱턴출발
항공포함
7박8일 8/30(월)~9/6(월)
Partial 오션뷰 발코니
\$2,390

로열 캐리비언 초대형 크루즈

ROYAL CARIBBEAN

땡스기빙 스페셜

머틀비치 골프 투어

골프 3라운딩 + 리조트 숙박

Legends Golf Resorts
Moorland/Heritage/Parkland
11/26(목)~11/29(일)
3박4일 \$845

한스 대형버스

2027 골프투어

코스타리카 5박6일

1/18(월)~1/23(토) \$2,490 **항공포함** **두자리 남음!**

포르투갈 8박9일

포르투갈 알가베 지역의 명문 골프 4라운딩
4/1(목)~4/9(금) \$4,190 +항공 인솔자:세라정

캐나다 록키 6박7일

캐나다 록키의 심장, 밴프 & 재스퍼에서 럭셔리 골프 4라운딩
6/21(월)~6/27(일) \$3,190 +항공 인솔자:세라정

고품격 한국여행

항공불포함 **교포연합**

각 도시 최고의 호텔과 맛여행, 제주:신라호텔/부산:그랜드 조선호텔
노블 전국일주 9박10일(제주포함) \$2,570
10/18, 10/25, 11/1
노블 내륙일주 6박7일 \$1,730
10/18, 10/25, 11/1
K-NOBLE 고국내륙 영어가이드 투어 8박9일 \$2,550

중화권

서부4대캐년 4박5일 일요일 출발 \$990 +항공
미서부 일주 7박8일 일요일 출발 \$1,540 +항공

호주

3명이상 출발가능 워싱턴 DC \$100
당일투어 루레이동굴 \$125
8명이상 출발가능 **미리 예약 하세요!**
뉴욕 1박2일 \$399
캐나다 나이아가라 & 뉴욕 2박3일 목요일 출발 \$650
미동부 캐나다 5박6일 \$1,350
나이아가라-토론토-몬트리올-퀘벡-우드버리아울렛-뉴욕 일요일 출발

2026년

항공료 별도

10/18 (일)~10/27(화) 스위스 알프스 기차여행	마감 마감 마감 마감 마감
10/8(목)~10/17(토) 캐나다, 뉴잉글랜드 단풍 크루즈	
10/12(월)~10/23(금) 포르투갈 & 스페인	
10/12(월)~10/24(토) 그리스 & 튀르키예 성지순례	
10/18(일)~10/27(화) 알프스 기차 파노라마 기차	
10/26(월)~11/07(토) 그리스 & 튀르키예	
12박13일 \$3,690	조앤한

2027년

01/18(월)~01/23(토) 코스타리카 골프 투어	5박6일 마감임박! \$2,490 항공포함 세라정
01/18(월)~01/28(목) 신비의 인도여행	10박11일 \$3,590 조앤한
02/07(일)~02/12(금) 코스타리카	5박6일 \$2,290 항공포함 애나김
02/16(화)~02/25(목) 이집트 & 나일강 크루즈	9박10일 \$4,290 데이빗한
03/12(금)~03/21(일) 파타고니아	9박10일 \$7,095 재키조
03/17(수)~03/26(금) 모로코 & 사하라 사막	9박10일 \$3,890 조앤한
03/29(월)~04/10(토) 일본 하이라이트	12박13일 \$5,995 재키조
04/11(일)~04/18(일) 고국 하이라이트	7박8일 \$2,590
04/01(목)~04/09(금) 포르투갈 골프	8박9일 \$4,190 세라정
04/11(일)~04/22(목) 포르투갈 & 스페인 여행	11박12일 \$3,790 애나김
04/18(일)~04/27(화) 동유럽 하이라이트	9박10일 \$3,890 세라정
04/27(화)~05/09(일) 프랑스 하이라이트	12박13일 \$4,990 애나김
04/28(수)~05/06(목) 중국 실�크로드 여행	8박9일 \$3,790 조앤한
04/28(수)~05/13(목) 중국 실�크로드 & 양쯔강 크루즈	15박16일 \$6,450
05/06(목)~05/13(목) 양쯔강 크루즈+ 상해, 강남 수향마을	7박8일 \$2,820
05/01(토)~05/09(일) 잉카의 신비, 페루 하이라이트	8박9일 3,595 재키조
05/09(일)~05/19(수) 서유럽 (프랑스+스위스+이탈리)	10박11일 \$3,690 세라정
05/11(화)~05/23(일) 그리스 & 튀르키예	12박13일 \$3,690 조앤한
05/30(일)~06/10(목) 알프스 파노라마 하이라이트	11박12일 \$5,995 조앤한
06/17(목)~06/27(일) 코카서스 실�크로드 여행	10박11일 \$4,250 재키조
06/18(금)~06/26(토) 그리스 섬 & 몰타 크루즈 여행	8박9일 \$3,290 (오션뷰) 인솔자
06/21(월)~06/27(일) 캐나다 록키 골프	6박7일 \$3,190 세라정
06/24(목)~07/07(수) 북유럽 & 발틱	13박14일 \$6,995 조앤한
07/11(일)~07/18(일) 아이슬란드 하이라이트	7박8일 \$6,595 재키조
07/26(월)~07/31(일) 캐나다 록키	5박6일 \$2,290 항공포함 애나김
08/06(금)~08/19(목) 아프리카 사파리+빅토리아 폭포	13박14일 \$12,890
08/06(금)~08/13(금) 아프리카 사파리 투어	7박8일 \$5,950 조앤한
08/30(월)~09/06(월)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Partial 오션뷰 발코니)	7박8일 \$2,390 항공포함 인솔자
09/02(목)~09/10(토)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트레킹5일)	8박9일 \$2,890 세라정
09/08(화)~09/19(토) 영국 일주 + 아일랜드	11박12일 \$6,950 재키조
09/12(일)~09/21(화) 이탈리아 & 톨로미티 여행	9박10일 \$3,890 애나김
09/25(토)~10/03(일) 이스터 아일랜드, 칠레 & 산티아고	8박9일 \$6,590 재키조
09/27(월)~10/10(일) 동유럽 &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독일	13박14일 \$4,790 애나김
10/11(월)~10/22(금) 포르투갈 & 스페인	11박12일 \$3,790 세라정

이외에도 다양한 여행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www.hanstravel.com 에서 더 확인하세요. **한스 여행사**에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상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타로 인한 가격 오류시 정가를 지불하셔야 하며 상품 예약 후 꼭 컨펌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서 ‘위헌’ 4차례 언급…국회·대통령 직격

증언 거부하며 ‘제청권은 대법원장 권한’ 강조…6분간 작심 발언
국감장 2시간반 동안 자리 지켜…“국회·대통령, 제청에 관여못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관한 증언을 거부하면서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는 뼈있는 발언을 내놨다.

대법원장은 통상 국정감사에서 인사말 후 이석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조 대법원장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 채택돼 증언을 요구받은 탓에 이날 오전 약 2시간 30분 동안 국감장에서 자리를 지켰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선 삼권분립을 들어 제청에 관한 증언을 거부한다고 했으나, 정작 증언 거부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제청권에 대한 헌법적 해석과 국회·대통령의 관여 범위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증언 요구에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

더니 “모두가 궁금해하니 부득이 말씀드리겠다”며 약 6분간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과정에서 ‘위헌’이라는 단어만 4차례 언급했다.

발언의 요지는 ‘헌법 104조 2항이 대법원장의 제청→국회의 동의→대통령의 임명으로부터 규정할 뿐,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제한하거나 국회 및 대통령이 제청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그는 “(헌법에 따라) 삼부가 각기 고유의 전속적인 권한을 가진다”며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상 근거도 없이 ‘국감 증언’이라는 형식을 빌려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

는 것은 “헌법이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표면적으로는 국감 증언 요구를 문제 삼았지만, 사실상 국회와 대통령 모두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관여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직격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나아가 헌법 104조 2항이 일부 다른 조항처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고 “이를 침해하는 절차와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모두 위헌”이라고도 재차 발언했다.

나아가 자신이 관행을 깨고 청와대와 합의가 안 된 손흥민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것에 헌법·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점도 거론했다. 청와대와 합의하지 못한 후보를 제청한 데 대해 “대통령과의 협의는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대법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 아래)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마친 뒤 소관 기관장들의 증언 선서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에 앉아 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온 것”이라며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다. 서면 제청 방식에 대해서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대해서도 그간 추천위원회의 의견을 존

중해왔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위헌·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명동의 요청서 역시 “대법원장 제청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 편의를 위해 국회가 정한 법률”이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와는 별개라고 했다.

“탄핵사유 충분” “대통령 대법관쇼핑” 여야충돌

2시간 30분간 집중 질의…국감 내내 고성·설전

여야는 6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문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두고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인사말 뒤에 이석하는 문제를 놓고 국감 시작부터 여야 간 격한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등을 소명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조 대법원장이 이석해야 한다고 맞붙었다. 민주당 소속의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조 대법원장이 선서하지 않자 “증인선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속 조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도 “조 대법원장

은 선서 의무가 있고,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의무가 있다”며 “(증인)선서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대법원장으로서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대법원장은 수십 년 동안 인사말하고 이석했다가 국감이 마무리될 때 다시 나와 인사말을 했다”며 “관례는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이 자리를 지킨 채 시작된 국감 질의에서 본격적으로 격돌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 위에 있다고 본다면 매우 착각”이라며 “재제청 거부는 헌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 위



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성운 의원은 “조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내역 언론 보도를 보면 ‘오마카세’, 호텔 레스토랑 디너코스 등 비싼 것을 먹었는데 국민이 이해가 되겠는가”라며 “업무추진비로 와인을 샀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 두(2)”라며 “모든 것을 부하직원에게 떠넘기면 윤석열하고 똑같다”고 꼬집었다.

조희대 대법원장 “게임 전혀 협조 안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며 “전혀 협조한 바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지 오래됐다. 12·3 계엄, 헌법 파괴 앞에서는 침묵하고 대신 직전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했

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12·3 불법 계엄 당시 대응에 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대법원은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안전관리관) 여러 차례 올라와

서 계엄사서 ‘인원을 과견해달라. 명단이라도 보내달라’(고 했지만) 제가 ‘위헌적인 행위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혀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직후 간부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에 협조하려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개인 업무추진비로 회식을 하면서 고가의 술을 구매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홈스프링 아동 가족상담소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학무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능,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약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영어팩스터 도서관 맞은편

3915 Blenheim Blvd., STE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TX)
-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이종언언자 환영

703-259-5617, 410-241-2520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1961년생 메디케어 가입 상담 및 신청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헬렌 서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571-225-0110

한동훈 “이종석 국정원장 미 입국 거부당했다”

조현 “전혀 아니다”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서 신경전…국정원도 “그런 일 없다” 반박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6일 "올해 3월경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미국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이 원장의 반미 성향 등을 문제 삼아 입국을 거부했다고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소속인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상대 국정감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그런 사실이 있느냐"며 이같이 질의했다. 조 장관은 "제가 아는 한 없다"며 한 의원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이에 한 의원은 "그 후 미 당국이 이 원장 측에 문서로 반미 성향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 문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도 모르느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조 장관은 "전혀 아니다"라며 "제가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정보 분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그럼 어떤 게 문제냐"고 질의하자 조 장관은 "정보 사항에 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선 "저는 국정원 화이트 요원이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조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받아 지난 10월 4일 외교부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도 "이종석 원장이 미국 가는 비자가 거부됐냐, 안 됐냐. 모르는 거냐, 아니라는 거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이번에도 "제가 아는 바가 없다. 제가 모르고,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다 김 의원이 "외교적 언어를 쓰지 말고 가냐 아니냐"고 추궁하자 "아니다. 이종석 원장의 비자가 거부당했다는 건 그럴 리가 없다고 확신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럴 리가



외통위에서 DMZ 지뢰폭발 사고 규탄 발언하는 한동훈 의원

없다"고 언급했다.

최근 국정원 직원들을 미국 워싱턴 주재 외교관으로 보내려 했지만 미 정부가 승인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한 김 의원의 질의에는 "테크니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국정원은 한 의원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그런 일 없음"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또 미국 측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기피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그는 조 장관에게 "미국 조야의 많은 정치인이 정 장관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는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냐"며 "미국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한미관계에 아무 문제 없다는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그것은

지난 번에 언론에도 나온 '구성 발언'에 관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3월 6일 국회 외통위에 출석해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보고라며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영변과 구성 외에 강선까지 거론했다.

당시 발언은 정부 고위 당국자가 공개석상에서 '구성'을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처음 언급한 것이라서 주목받았으며, 이후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북 정보 일부의 공유를 제한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이날 한 의원의 질의 과정에선 조 장관과 날 선 신경전이 이어졌다.

한 의원이 "좀 외교적으로 하시죠, 저쪽(민주당 측) 볼 때하고 이쪽 볼 때하고 표정이 많이 다르시네요"라고 하자 조 장관은 "더 이상 어떻게 좋은 표정을 짓겠느냐"고 받아쳤다.

조 장관은 압박성 질문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교통일위원장을 바라보며 "SOS를 강구한다"고 했고, 송 위원장은 "이렇게 SOS 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달라"며 분위기를 정리했다.

여야, 국감서 호남반도체·대미투자 신경전

국힘 “호남 1극 성장·대국민 사기극”…여 “기업이 호남 선택한 것”

여야는 6일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 등 대미투자 사업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두 사업을 두고 '호남 몰아주기'·'통상참사'라며 파상 공세를 퍼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균형 발전 전략과 협상 성과를 강조하며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예산 약 3조원 중 호남 반도체 예산이 1조원을 넘는 반면, 대구·경북 지역의 반도체 예산은 148억여원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지역 성장을 형평성 있게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예산 편성대로면 '호남 1극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대미투자액이 2천억 달러인데 6천억 달러(약 800조원)를 호남에 투자하겠다고 한다. 그런 발표를 하니까 미국이 '한국은 돈이 많구나'하고 투자 압력을 넣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고, 박성민 의원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될 요소가 굉장히 많다. 허상이고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맹비난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용인 반도체 팹이 모두 완공되면 용수 여유분이 8만톤(t)밖에 안 된다"며 "삼성과 하인릭스가 물과 전기가 있는 서남권을 선택한 것이지 (정부가) 팔을 비튼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송재봉 의원은 "정부가 얼마를 투자해라, 어디에 지으라 요구한 적이 없지 않느냐"며 "전 국토가 반도체 클러스터화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소부장'·팹·패키징 사업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여야는 대미투자 협상 결과를 놓고도 이견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알래스카 LNG는 우리 정부가 지난 40년간 경제

성이 없다는 이유로 작업 착수조차 하지 않았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500억 달러 투자를 확정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초유의 통상 참사를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대미투자 2호와 3호는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초강대국과 협상하며 끈질기게 한국의 이익을 집요하게 지켜내는 협상이 김 장관을 믿는다"며 "장관님을 보며 서희 장관을 연상한다"고 추켜세웠다.

여야 간 언성이 높아지자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언행을 순화해 발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중재하기도 했다.

여당 “왜곡없어” 국힘 “부적절” 영화 암살자(들) 무료관람 추진 공방

여야는 6일 국회 정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부 산하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영화 '암살자(들)'을 제대군인 주간 무료 관람 영화로 추진했던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실 왜곡 논란이 있는 영화의 무료 관람을 예산을 동원해 추진한 것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별한 사실 왜곡이 없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논리로 맞섰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국가 예산을 써서 제대군인과 그 가족들한테 이 영화를 보여준다는 결정은 표현의 자유하고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보훈부가 영화를 선정할 땐 보훈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도 해당 센터의 당초 계획서에서 영화의 시놉시스를 인용해 홍보문구를 작성했던 것을 언급하며 "보훈부 이름으로 홍보했다. 이게 말이 되냐"라고 질타했다.

'암살자(들)'은 1974년 발생한 박정희 대통령 암살 미수와 육영수 여사 피격 사망 사건을 다룬 영화다.

극 중 일부 인물이 당시 일본과의 외교 관계 등을 근거로 중앙정보부 '윗선'이 배후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을 내놓는 장면을 두고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감독이 밝힌 것처럼 1974년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모티브로 당시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을 바탕으로 영화적 상상력으로 만든 것 아닌가"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격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강일 의원은 "(영화는 저격범) 문제광이 누구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게 전혀 없다"며 "역사를, 팩트를 바꾼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국감 첫날 정부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멕시코 칸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를 당했고, 이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NVAR Top Producer
▶ Zillow Premier Agent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애난데일 싱글홈	옥튼 콘도	윌브리지 타운홈	센터빌 싱글홈	클립턴 싱글홈
\$6,000	\$2,450	\$469,000	\$999,000	\$950,000
주재원 대 환영!! 모든 가구 + TV 포함 방5/화4.5, 4800sf, 예촌근처	방2/화2, 비엔나역 근처 거리지 파킹, 업그레이 많이 함	방3, 화22 업그레이드 많이 한 집	방6, 화3.5	방4, 화4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FAIRFAX REALTY 501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김원근 변호사

재판·소송

- 민사·형사·이혼·강제집행·공사관련·세입자분쟁·비즈니스·프랜차이즈 분쟁·세금분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가정폭력·범죄기록말소·임금 연장근로수당·경업금지 소비자 보호법 명예훼손·자동차 교통사고·산재보험·화재보험·자동차 보험·각종 보험사고 기타 각종 재판 및 소송처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여야, 재경부 국감서 대미투자·부동산 시장엔 한목소리 지적

검찰 “투자자인데 주도권 없어”...국힘 “국익 반하면 국정조사”
부동산 정책도 도마에...여야 레버리지 ETF 자료 공방도

여야는 6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국정감사에서 대미투자 내용과 부동산 정책을 두고 한목소리로 우려점을 지적하며 정교한 대응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투자라고 하면 투자자가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데 투자자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다 미국에 있다”며 “여러 정치적·외교적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행여야 할 것이 많은데 그게 너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도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개발과 관련해 한미 간 엇갈린 발표가 나온 것에 대해 “아직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결론을 못 내렸고 미국도 양해를 하고 있다”고 정부를 두둔하면서도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을 추궁하는 질문이 이어졌다.

임이자 의원은 첫 대미투자금으로 24억달러가 미국에 송금된 것을 두고 “검증도 없이 24억 달러가 송금되고 검증도 없이 100억달러 선급금부터 약속했나”며 “상업성이 미달해 국익에 반하면 반드시 국정조사나 해임 건의까지 들어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추가 질의에서는 임 의원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간 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해 ‘상업성 미달’과 관련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임 의원이 “상업성 검토에서 미달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거듭 묻자 이 부총리는 “가정을 전제로 지금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임 의원은 “그렇게 소신이 없어서 어떻게 일하냐”고 쏘아붙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재명 대통

령의 ‘평탄화’ 발언을 두고 “지역 부동산에서는 ‘대통령이 평탄·동탄·화성’이라고 했다”라고 받아들일 정도로 희화화되고 있다”며 “대출이 막히고 전세가 사라졌는데 어떤 주체가 정부 정책으로 혜택을 본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무소속 이준석 의원은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많이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의문을 갖고 있다”며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단기적인 부동산 정책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5년, 10년 후를 내다보는 국토균형발전의 관점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을 둘러싼 책임론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레버리지 ETF 도입은 지방선거 앞두고 주식시장 띄우기 프로젝트였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라며 “정부가 졸속 추진했고 정책 실패 사안이라고 본다”고 주장했



주거 안정 관련 대책 질의에 답하는 이형일 부총리

다.

이날 국감 시작 전에는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두고 여가간 공방을 벌여지기도 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이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개인투자자에게 약 54조 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혔고 재정 당국의 신뢰도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1월 13일 청와대 회의 보고용 사전 검토자료와 재경부에 하달된 대통령실 지시사항과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과 금융상품에 관한 부분은 정부위원회에서 주로 다뤄야 한다”며 “현재 청와대 관련 회의는 업무분장을 국회운영위원회에 맡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이 부총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많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미리 해결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현 “北지뢰, 안보리 결의·의장성명·서한 등 외교대응 검토”

“우크라 사과, 생각한 수준과 차이”...주우크라대사 소환도 검토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등 외교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전날 우리 장병이 크게 다친 DMZ 지뢰 폭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는 최종조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외교 당국이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 조치를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묻자 “안보리에 가면 안보리 의장 성명이 있을 수 있고, 그보다 더 강한 결의안 채택이 있을 수 있고, 그냥 일방적인 서한을 보내는 것이 있고, 효과를 생각해 서한을 보내는 것이 있다”며 “네 가지 방안을 다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는 것은 기본”이라며 서한을 보내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조 장관은 “그 세 가지 방안(안보리 결의·의장성명·서한) 플러스 다른 고



선서하는 조현 외교부 장관

려를 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당시 주유엔대사 명의로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유감을 표명하고 추가 도발 자체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남북과 유엔사가 MDL의 좌표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민주당 우원식 의원 주장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리 정부가 요청하고 있음에도 북한 측 호응이 없어서 어떤 방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에 단호한 요구를 하는 것과 이것이 불필요하게 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

과 같다”며 “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냐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2차 보고서 결과 등을 토대로 “당연히 검토하고 있다”며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대북 독자제재 문제를 두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충돌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조 장관은 정 장관과 충돌한 것이 맞느냐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충돌은 없었다”면서도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이 이견은 있었던 것이냐고 재차 묻자 “있었다고 하지 않았다. 있을 수 있다고 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를 둘러싼 외교 갈등과 관련해 우크라이나로부터 “사과의 말도 들어있는 메시지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사과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형일, 美100억달러 송금요구에 “상업성·국내절차 완비해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첫 대미투자금으로 24억달러를 이달 1일 미국으로 송금했다고 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9월 30일과 10월 1일 각각 팩트시트를 한미가 공동발표하고 나서 10월 1일 24억달러가 (미국으로) 송금됐느냐’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한미는 지난 1일 첫 사업으로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6.472기가와트(GW) 용량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 스타’를 확정했다.

총사업비 약 223억달러의 10% 납짓자금이 합의 직후 송금된 것으로, 정부가 이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날 이 부총리의 발언이 처음이다.

임 의원은 “상업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사전 보고지만, 상업성이 없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런 논의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부총리는 “국회 보고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팩트시트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에 관해 “충족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상 송금 시점이 ‘투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하는 날짜로 규정돼 있는데도 투자금을 바로 송금한 점을 지적하며, “MOU 문구 오류가 맞느냐”고 물었다.이에 이 부총리는 “그런 면이 있다”고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애초 45일 이내로 계속논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이 “읽어보지도 않고 MOU에 서명하느냐”고 쏘아붙이자, 이 부총리는 “그 부분은 굳이 저희가 지적할 이유가 없었다”며 “우리와 미국이 합의하면 빨리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운영계약 협상에서 미국 측은 45영업일 이내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한국은 유리한 MOU 문구를 근거로 45영업일’을 관철해 45영업일보다 더 빠른 송금 기일 지정을 막아냈다는 의미다.

이 부총리는 ‘프로젝트 파워’로 불리는 1천200억달러 규모의 원전 건설 사업과 관련, 오는 12월 31일까지 100억달러를 우선 송금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의 지적에 “상업적 합리성이 검증되고 국회, 국내법상 절차를 다 완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승욱
연방세무사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김영선
연방세무사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정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버마케터 / 메디케어

모든 부동산 매물을 환영합니다!

부동산 매매 · 임대 · 리스팅 등 모든 업무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집 수리해서 팔아드립니다!

집이 오래되었거나 수리가 필요한 집도 걱정하지 마세요. 수리부터 판매까지 믿고 맡겨주십시오.

- 필요한 수리 · 보수부터
- 정기 및 준비
- 사진 · 마케팅
- 매물 등록 및 판매까지

낡고 오래된 집도 걱정하지 마세요.

- 어떤 집 상태든 OK · 어떤 지역이든 OK
- 주택 · 콘도 · 다운하우스 등 모든 매물 상담 가능
- 빠른 매물 등록 및 적극적인 마케팅
- 고객의 입장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

비키리 부동산

Amplus Realty LLC info@amplusrealtyllc.com
전화 문자 703-231-5572

“합리적인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바이어 한영

매물이 10년 100만, 고객님 만족하는 집을 찾는 데까지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머니톡스

잃어버린 30년...경제학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았다

1980년대 후반 한때 일본에서는 도쿄 토지가치로 미국 전역의 땅을 살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지나왔다. 일본 내에서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불패 신화에 기댄 투기적인 기대감이 땅값을 밀어올려서다. 그러나 영원히 부풀어 오를 것만 같던 거품은 만성 불황으로 둔갑했다. 거품이 꺼지자 가계와 기업이 빚을 갚느라 소비와 투자를 멈췄다. 자산가치는 70% 넘게 폭락했지만, 부채(빚)는 그대로 남았기 때문이다.

경제학 이론상 일반적으로 금리를 내리면 시중에 돈이 풀려 대출이 늘고,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때 커니즘이 30년 넘게 작동하지 않았다. 돈을 아무리 풀어도 실물 경제로 돈이 돌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것이다.

일본은행과 일본 정부가 0%대나 마이너스(-) 초저금리와 대규모 유동성 공급 정책을 펼쳤지만, 일본은 만성적인 디플레이션(물가 하락)과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역사적으로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경험이 있는 미국 등 다른 국가는 강력한 재정지출이나 신속한 부실은행 정리, 통화 바스켓 조정 등으로 5~10년 안에 탈출구를 모색했다.

반면 일본은 부실채권 정리와 좀비기업 구조조

정 지연, 빠른 속도의 초고령화, 내수 중심의 디플레이션 심리 고착이 결합하면서 세계 역사상 가장 긴 30여년 불황을 겪은 유일무이한 모델로 남게 됐다.

특히 일본에서는 경제 주체들의 행동 양식 자체가 디플레이션에 최적화됐다.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구조적 인구 절벽이었다. 일본은 1995년을 기점으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해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은퇴 후 수명이 길어지자 돈을 쓰지 않고 예금으로 묶어두는 방어적 소비가 일반화됐다. 가계는 “내년에 물건값이 더 떨어질 텐데 지금 살 이유가 없다”며 내구재 소비를 미뤘다. 내수 기업들은 소비자를 붙잡기 위해 물건값을 낮추거나 동결했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했다. 임금이 오르지 않으니 지갑을 더 닫고 물가가 다시 하락하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된 것이다.

일본은 올해 들어서야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로 진입했다. 전쟁 등으로 수입 인플레이션(물가 급등) 현상이 빚어지자, 내수 기업들이 판매가를 올렸고 극심한 인력난을 겪는 기업들은 30여 년 만에 임금 인상을 단행했다. 물가가 오르고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자 일본은행이 비정상적인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비로소 끝낸 것이다.

스금리 시대를 비로소 끝낸 것이다.

한국도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천112만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21.6%에 이른다.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 자산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불안에 짓눌려 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정부가 경제가 잘 돌지 않을 때마다 부동산 시장을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쓰는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깎아주면서 투기 수요를 자극하곤 했다. 그러나 이런 투기를 자극하는 방식은 당장의 경제지표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

일본 사례에서 얻은 “거품은 언젠가 꺼지고, 그 청산의 비용은 사회의 약한 고리부터 무너뜨린다”는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가계 부채를 철저히 관리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면서 공급을 체계화하는 길을 가야 한다. 부동산에 묶여 있는 자금이 혁신기업과 미래 산업 투자로 갈 수 있게 물꼬를 터줘야 한다. 생산과 혁신 경제로 가는 것이 ‘잃어버린 30년’의 전철을 밟지 않는 탈출구가 될 수 있다.

울곡로

바주키 가족의 기적...조울증 완치 길 열릴까

세계 수억명 아동 청소년이 즐기는 메타버스 게임 ‘로블록스’ 창시자 데이비드 바주키 최고경영자(CEO)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억만장자다. 아쉬울 것 하나 없을 듯하지만 의외로 그에게도 큰 우환이 있었다. 아들 맏이 10대 후반에 제1형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 진단을 받고 5년 넘게 약물 치료를 받으며 여러 번 입원을 반복했다. 조울증은 약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아들에겐 약이 잘 듣질 않았다. 정신과 의사들은 평생 대여섯 가지 독한 약을 달고 살아야 겨우 일상을 유지할 수 있고 완치는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바주키는 형언할 수 없는 절망감과 무기력감에 무너져 내렸다. 글로벌 빅테크를 맨손으로 키워낸 비범한 엔지니어이자 경영자로서 “불가능은 없다”고 믿어왔는데, 정작 아들 문제 하나 해결 못 하는 현실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 최고의 정신과 전문의들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표준 약물 처방과 심리 치료를 받고 이를 잘 따라왔는데도, 아들의 상태가 호전되진커녕 점점 나빠지자 절망과 불신이 더 커졌다. 백악기 무효인 듯한 치료 시스템을 점점 더 믿기 어려웠다고 한다.

특히 아들 맏은 병세가 최악에 달했을 무렵엔 일상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닐 지

경이 됐다. 가정의 울타리를 뛰쳐나가 거리를 배회하거나 연락 두절된 채 노숙자처럼 지내다 극적으로 발견되는 등 안전과 생명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당시 바주키 부부는 아들이 학업이나 사회생활로 복귀할 거란 기대는 아예 접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다. 2021년 시작된 크리스 파머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와의 인연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꿨다. 바주키의 아들은 파머의 진단과 처방대로 탄수화물 섭취를 최소화하고 지방 섭취를 극대화하는 의료용 케토제닉(속칭 저탄고지) 식단을 시도했다. 놀랍게도 불과 몇 주 만에 증상이 거짓말처럼 호전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몇 달 만에 사실상 완치 상태를 일컫는 ‘관해’(remission)로 판정받았다. 세계 최고의 료진들이 5년 동안 개선하지 못했던 난치성 조울증을 단 몇 개월 안에 극복한 것이다. 다만 정신과 약 자체는 의사의 지도 아래 점진적으로 줄여나갔다. 지금은 약을 끊고 식단으로만 정상 상태를 유지 중이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새 치료법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 바주키 가족과 대사질환이 정신병에 미치는 영향을 평생 연구한 의사의 노력이 만나 값진 열매를 맺었다.

평생 장애를 겪거나 자칫 죽을지 모른다고 걱

정했던 아들이 말쑥해진 모습을 본 부모라면 다 비슷한 심경일 듯하다. 기적에 감사하고 보답하며 살겠다는 생각이지 않을까. 바주키도 개인의 기적을 사회 공헌으로 승화하기로 했다. 거액을 출연해 정신질환 연구를 지원하는 ‘바주키 그룹’ 재단과 ‘메타볼릭 마인드’ 플랫폼을 파머 박사와 손잡고 설립한 것이다. 재단은 케토제닉 식단과 뇌 대사 의학 연구를 지원 중이다. 이런 노력 덕분에 이단시됐던 ‘뇌 대사 정신의학’과 정신 식이요법은 주류 의학계로 빠르게 진입해 정신질환 치료의 새 장을 열었다.

바주키는 지금도 정신질환 극복에 공헌하고자 노력을 쏟고 있다.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는 건 물론 가족 구성원들이 직접 강연에 나서기도 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정신건강 문제로 진료받은 사람은 약 433만 명에 달했다. 이는 10년 전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조울증 환자는 작년 14만 명을 돌파해 10년간 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신질환은 중대한 사회 문제가 됐다. 자살 증가와 직접 연관됐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하루빨리 조울증을 비롯한 난치성 정신질환이 완전히 정복되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온 가족이 두 팔 걷어붙이고 뛰는 바주키 가(家)를 응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말저런글

‘접할 수 있는’ 기회 → ‘접할’ 기회

가능성에 대한 의심 탓일까, 역부족에 대한 걱정 때문일까. ‘할 수 있는’ ‘될 수 있는’ 표현이 남용된다. 안 써도 될 곳에 자꾸 쓰니 문제다. 어떤 행사를 알리는 글이다. ① ‘다양한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행사를 선전한다. 이는 ‘다양한 작품을 접할 기회’라고 쓰면 된다. 다음 문장도 → 이하로 고친다. ②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갖춘다. (→ 사업을 이어갈 환경을 갖춘다)

바로잡을 보기가 한둘이 아니다. ③ 걸끄러운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 걸끄러운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④ 단백질질을 섭취하는 것이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 단백질 섭취가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될지 조사해야 한다) ⑤ 그들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 그들이 마약류 검사권도 갖게 된다)

비슷한 사례가 넘친다. ⑥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 보조금을 줄 근거가 생겼다) ⑦ 그것이 제도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 그것이 제도를 살릴 유일한 길이다) 동사의 어간에 ‘-수 있는’을 붙여 쓴 이것들은 중독성이 강한 표현이라고 한 국어책(※ 이하 참고)은 진단한다.

책은 ‘가능성’과 ‘능력’을 꾸미는 예문 둘을 앞세워 중독성이 어느 정도 인지를 명징하게 보인다. ⑧ 1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거야? (→ 1등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거야?) ⑨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자 한다.

미디어 중앙 THE KOREA TODAY

MEDIA CENTRAL NEWS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 · 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체 계약 제휴사

연합뉴스, 코리아타운 데일리, Washington Post

1. 맥클린 Rotonda 콘도 \$489,000



2BR / 2BA-Spring Hill ES / Cooper HS / Langley HS 남향, 하드우드 주방 욕실 업데이트 Samsung 스마트 가전, 게이트 커뮤니티, 실내 야외 수영장, 사우나, 헬스장, 레크네스, 피콜블, Greensboro Metro, The Boro, Whole Foods, Tysons Corner 인접.

2. 찬틀리 하이 타운홈 \$819,500



빌딩 넓은 맨드류시/햇살 가득한 오픈 플로어 플랜, 하드우드 바닥(고래나이트 주방, Trex 데크 & 울타리 있는 뒷마당, 풍부한 자연재원과 실용적이고 넓은 공간, 편리하고 쾌적한 주택, 침실 4개 / 욕실 3.5개/차고2 넓은 3층 브레이크아웃 구조 지하층 4세대 침실+욕실

3. 애쉬번 럭셔리 싱글 같은 타운 \$889,000



2015, 방 4, 화 3.5, 차고 2, 3,66sqft, 전체마루, 최고 학교 Rock Ridge HS, RT 50/66/267, 벨라스공향, 교통요지

4. 애난데일 싱글 \$720,000



애난데일 중심, 방 3, 화 2, 0.23acre 넓은 마당/창고, 교통편리, 생활 편의시설, 495/95/Backlick Rd

5. 게인스빌 콘도 \$425,000



3BR / 2.5BA, 1,788 Sq Ft 차고 1 집 전체 LVT Flooring, 마루 I-66 & Rt. 29, RT15 접근 편리, 쇼핑·식당 가까운 좋은 위치

6. 찬틀리 하이 싱글 \$1,379,000



Sold 방 5, 화 4.5, 차고 2, 콘크, 최고 학교, 잘 관리된 집 새 지붕 (2018), HVAC 교체, 실내 새 페인트, 주방 가전 업데이트,

7. 게인스빌 골프 싱글 \$1,060,000



Sold 게인스빌 레이크 매나사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

8. 도미니언 밸리 컨트리 클럽, 헤이 마켓 싱글 \$1,699,000



SOLD / CASH 1메이커 숲속, 6,700sqft, 방 5, 화 5.5, 차고 3, 선물,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팍 욕실, 드레스룸, 미디어룸, 게임룸, 바포함,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9. 알디 싱글 \$869,000



Sold 2004년, 방 4, 화 2.5, 차고 2, 전체마루, 콕컨디션, New Trex deck, New paint, New roof, John Champe High School

황계실 571-239-6054

고객만족 18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건물·오피스·창고·상가

부동산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3층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6년 현재 **30년 이상**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SPECIAL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2027 메디케어 등록안내

메디케어 플랜 변경기간 2026년 10월 15일 ~ 12월 7일

상담 예약

703-973-5900
410-216-1553

무료
상담

애난데일 지점

7003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센터빌 지점

14631 Route 29, #214,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지점

3277 Pine Orchard Ln., #2
Ellicott City, MD 21042



오 항 제
703-973-5900

2027년도에는 갖고 계신
메디케어 어드벤처지(Part C)와
약보험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꼭 비교를 해보세요!



Jenny Oh
703-642-0305

매주 토요일 무료상담합니다 (예약에 한함)

매주 토요일
9AM~4PM

엘리콧시티 롯데플라자 내 만남의 장소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28년의 경험과 실력

코너스톤 종합보험

7003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Fairfax

(703) 642-0305

Richmond

(804) 767-3714

Ellicott City

(410) 216-1553

Tidewater/Newport News

(757) 941-7216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예춘
알
빌딩

냉·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LENNOX, TRANE, Carrier, Lennox 전문딜러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추방재판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95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은 별도 \$5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스)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병사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703)303-4556 / f. (703)303-0988
f.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연명의료법 후 암 환자 말기 항생제 처방 오히려 증가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뒤로 암 환자의 임종 전 생애 말기 항생제 사용이 도리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 전 연명의료 중단 항목에 항생제가 포함되지 않은 탓에 치료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항생제가 불필요하게 투여되는 등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대목동병원 감염내과 김정환 교수와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유신혜 교수, 가톨릭대학교 심진아 교수 공동 연구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전후 암 환자의 생애 말기 항생제 사용을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는 2012~2023년까지 폐암, 간암, 위암,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담도암, 유방암 등 8대 주요 암으로 사망한 성인 74만3천84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연구팀은 이들이 사망 전 6개월간 항생제 처방 양상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전(2012~2017년, 34만8천813명)과 시행 후(2018~2023년, 39만5천29명)로 나눠 비교했다.

그 결과 사망 전 6개월 동안 한 번이라도 항생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비율은 법 시행 전 88.3%에서 시행 후 90.8%로 증가했다.

특히 사망 전 3개월과 마지막 일주일처럼 사망에 가까운 시기에도 항생제 처방 증가가 뚜렷했다.

반코마이신이나 카바페넴과 같이 중증 감염이나 항생제 내성균 감염에 주로 사용하는 강력한 광범위 항생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비율은 54.4%에서 63.9%로 9.5%p 증가했다.

연구팀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중단 항목에 항생제가 포함되지 않아 생애 말기 암 환자들에게 치료 효과가 불분명한



[연합뉴스TV 제공]

암 환자 74만명 항생제 사용 분석...연명의료법 ‘사각지대’ 지적

항생제가 불필요하게 투여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를 중단한 데서 오는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하고, 돌봄을 지속하기 위해 항생제 치료를 선택했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연구팀은 항생제 사용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생애 말기에도 항생제를 통해 감염으로 인한 증상을 줄이는 등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다. 환자의 상태와 치료 목표, 이득과 부담을 함께 고려해 항생제 사용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연구팀의 결론이다.

김정환 교수와 “연명의료결정법 도입 이후에도 생애 말기에 항생제를 사용하는 비율과 투여량이 오히려 증가했

다”며 “향후 연명의료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생애 말기 항생제 사용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생명 연장만을 위한 연명의료를 스스로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존엄성을 보장하고자 마련돼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치료, 지속적 신대체요법, 체외막산소공급(에크모) 등이 연명의료에 포함된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HANS TRAVEL
문의전화 703-658-1717
hanstravelusa@gmail.com
7601 Little River Tnpk., #201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현스 홈케어 서비스
HYUNS HOMECARE SERVICE
Always With You!

**30년 삼성 HR 경험,
이제는 홈케어 서비스와 함께 합니다.**

“사랑을 아는 경험, 사람을 돌보는 마음 -
현스 홈케어”

**어르신 상담
Senior Consulting Service**

- ▶ 맞춤형 개인 간병 서비스 (치매 상담제공 - CDP)
- ▶ Medicaid 신청 및 각종 정부 지원 안내 (푸드 스탬프, 교통 지원 등)
- ▶ Senior Living 안내 (시니어 아파트, 그룹홈 등)
- ▶ 병원 및 약국 업무 대행 서비스
- ▶ 의욕기기 및 개인용품 주문 서비스

복잡한 롱텀케어 신청 도와 드립니다.

**간병사 모집
Caregiver Recruitment**

- ▶ 월 2회 간병사 교육 및 Certification 발급
- ▶ CNA 교육 지원 (시험 응시료 1회 지원, 취득 시 추가 혜택 제공)
- ▶ 주급 지급 (매주 금요일)
- ▶ 안정적인 근무 배정 및 경력 관리 지원
- ▶ 친절하고 체계적인 행정 지원

TEL: 703.507.2492 Mr. 배 571.334.3963 Mr. 윤
FAX: 571.789.2234

Hyunshomecare@gmail.com
2834 Hill Rd., Vienna, VA 22182
www.hyunshcs.com

혈당 높은데 ‘적당한 술’ 관찰을까…447만명 추적했더니

“술도 조금씩 마시면 괜찮지 않을까?” 건강을 걱정하면서도 술을 완전히 끊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법한 생각이다. 특히 과음만 피하면 소량의 술은 건강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혈당이 정상보다 높은 사람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최근에는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단계에 해당하는 공복혈당장애가 있는 사람은 비교적 적은 양의 술을 마시더라도 대장암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대장암은 국내에서 흔한 암 중 하나다. 중앙암등록본부가 올해 발표한 국가암등록통계를 보면 2023년 새로 발생한 대장암은 3만2천610건으로 전체 암의 11.3%를 차지해 3위였다.

국제학술지 ‘미국국립암연구소 저널’(Journal of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JNCI) 최신호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송실대 공동 연구팀은 201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447만5천492명을 대상으로 혈당 상태와 음주가 대장암 발생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추적 관찰의 중앙값은 9.3년이었으며, 이 기간 5만1천592명이 대장암을 진단받았다.

우선 혈당 상태만 놓고 봐도 대장암 위험에는 차이가 있었다. 혈당은 공복 혈당이 100mg/dL 미만이면 정상, 100~125mg/dL이면 공복혈당장애로 분류했



음주

[자료사진]

공복혈당장애·당뇨병 있으면 적당음주에도 대장암위험 23%·48% 높아
음주량·횟수 늘수록 위험 상승…“혈당 높은 사람 음주 최소화해야”

다. 당뇨병은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당뇨병 진단코드로 연간 한 차례 이상 치료제를 처방받은 경우로 정의했다.

혈당이 정상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대장암 발생 위험은 공복혈당장애가 있는 사람이 11%, 당뇨병 환자가 26% 각각 높았다.

여기에 술까지 더해지자 차이는 더욱 벌어졌다.

연구팀은 하루 음주량을 남성 30g 미만, 여성 20g 미만이면 적당 수준 이하의 음주로 분류했다. 이를 일반적인 술로 환산하면 알코올 20g은 소주2~3잔, 30g은 소주3~4잔 안팎에 해당한다.

분석 결과 보통 수준의 음주를 하는 사람 가운데 공복혈당장애가 있는 사람의 대장암 위험은 정상혈당이면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에 견줘 23% 높았으며, 당뇨병 환자는 이런 위험이 48%까지 상승했다.

혈당이 높은 사람에게는 술이 대장암 위험을 더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과음하는 경우에는 차이가 더 컸다. 정상혈당·비음주자와 비교한 대장암 위험이 정상혈당 과음군에서

는 17%, 공복혈당장애 과음군에서는 41%, 당뇨병 과음군에서는 77% 높았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공복혈당장애나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 술을 마시면, 두 위험 요인이 각각 미치는 영향을 단순히 합친 것보다 대장암 위험이 더 커지는 ‘상승작용’도 관찰됐다.

연구팀은 가능한 설명 중 하나로 산화스트레스와 염증의 증진을 제시했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생기는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축적되고 점막 염증과 산화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다. 고혈당 역시 최종 당화산물 생성과 염증 신호체계 활성화 등을 통해 산화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다. 이 두 과정이 겹치면서 대장 세포가 암으로 변하는 데 취약한 환경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잘 분해하지 못하게 하는 유전자(ALDH2) 변이가 한국인을 포함한 동아시아인에게 상대적으로 흔한 특성이 비교적 적은 음주에서도 대장암 위험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일 가능성도 추정했다.

연구팀은 “보통 이하의 음주에서도 대장암 위험 증가와의 연관성이 확인됐고, 특히 공복혈당장애나 당뇨병이 있는 사람에게서 이런 연관성이 두드러졌다”면서 “혈당 대사에 이상이 있는 사람일수록 알코올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대장암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AI 핵심자원 진료기록, 누구 것?…소유권 규정 없다

국민 95% 병원 이용하나 현행 의료법상 권리 귀속 조항 부재

국민 대부분이 매년 병원을 이용하면서 의료 인공지능(AI)의 핵심 자원인 진료기록이 방대하게 쌓이고 있지만, 정작 이 기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시한 법적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건강보험 적용인구 5천139만명 가운데 94.9%에 달하는 4천876만명이 의료기관 진료를 받았다.

진료받은 국민 1인당 연평균 내원일수는 22.0일에 달했으며, 전체 입·내원일수는 10억7천100만 일로 집계됐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국민의

약 95%가 연평균 22일 안팎으로 병원을 찾으면서 질병과 건강 상태를 담은 방대한 데이터가 누적되고 있다.

그러나 병원에 축적되는 환자의 진료기록이 법적으로 누구의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 소유권의 법적 근거에 대해 “현행 의료법상 진료기록의 소유권 귀속 주체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보존·관리 의무(제22조 제2항)와 비밀 누설 금지 의무(제19조)를 부과하고, 환자에게는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권

< 김선민 의원실 >

1. 환자 진료기록 소유권 관련 법적근거

- **현행 의료법상 진료기록의 소유권 귀속 주체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음.**
- 다만,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보존 관리의무(의료법 제22조 제2항) 및 정보 누설 금지의무(의료법 제19조)를 가지며, 환자는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것을 요청할 권리 등(의료법 제21조)을 가짐

[자료=김선민 의원실]

(제21조)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보존 의무와 열람 권한을 나눈 것일 뿐 데이터 자체의 소유권 귀속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의료AI 기술 확산과 맞물려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진료기

록은 AI 개발에 가치가 높은 데이터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여서,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해외 역시 법적 체계가 엇갈린다. 김선민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

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법상 규정이 없으나 다수 주가 병원이나 의사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뉴햄프셔주 등 일부는 환자 소유를 명시하고 있다. 일본, 독일, 프랑스는 한국과 유사하게 별도 소유권 규정 없이 보존 의무와 열람 권한 위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인공지능 시대로 갈수록 의료정보는 중요한 자원이자 철저히 보호해야 할 자산”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열람·삭제 권리가 있어도 소유권 규정이 미비하면 의료AI 발전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는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정립하고 법적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에서의 통증·재활 분야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양·한방 통합 치료로 집중 케어 해드립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
- 뇌졸중/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축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 치료, 보웬스 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 치료, 한방 침 치료, 전기 치료, 관절/근막이완 치료

원장 김우기 DPT, LAC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University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 Licensed Acupuncturist

메디케어 / 교통사고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여행자 보험, 캐쉬플랜

김우기 **통증·한방·재활 물리치료**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받습니다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첼렌리 지역]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 동 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 **잇몸치료** · **치아교정**
Implant · Periodontal Surgery ·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 **치아성형** · **신경치료**
Emergency · Veneer Lumineers ·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암 치료 후 운동 줄였더니…치매 위험 46% 높았다

암 치료가 끝나면 많은 환자가 재발 여부나 후유증 관리에 주로 신경을 쓴다. 하지만 암을 이겨낸 뒤 장기적으로 챙겨야 할 건강 문제 중 하나가 인지 기능이다.

특히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일부 환자는 치료 전후로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릿속이 흐릿해진 듯한 증상을 호소한다. 흔히 ‘케모 브레인’(chemo brain)으로 불리는 암 관련 인지 기능 저하다.

그런데 암 진단을 받은 뒤 운동량이 줄어든 사람은 꾸준히 신체활동을 유지한 사람보다 이후 치매 발생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제 학술지 ‘암 연구와 치료’(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최신호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과·대전대 보건의료경영학과·분당서울대병원 빅데이터센터 공동 연구팀(박상민, 이수경, 한민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해 암 진단 전후 신체활동 변화와 이후 치매 발생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연구 대상은 2009~2015년 암을 진단받은 뒤 3년 이상 생존하고, 암 진단 전과 후에 각각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26만659명이다. 기존에 치매를 진단받았거나 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한 사람은 제외했다.

연구팀은 건강검진 설문에 기록된 운동 빈도와 강도를 이용해 암 진단 전후의 신체 활동량(MET-min/week)을 계산하고 치매 발생 위험을 비교했다. MET는 운동할 때 소비하는 에너지가 안정 상태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 결과 암 진단 후 신체 활동량이 줄어든 사람은 높은 수준의 신체활동을 계속 유지한 사람보다 전체 치매 발생 위험이 46% 높은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신체활동을 유지하거나 늘린 사람에게서는 치매 위험이 18% 낮았다.

이런 연관성은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암 생존자에게서 두드러졌다. 항암치료를 받은 사람 가운데 신체활동을 유지하거나 늘린 경우 치매 위험은 20% 감소했다.

반면 항암화학요법을 받지 않은 암 생존자에게서는 운동량 변화와 치매 위험 사이의 연관성이 통계적으로 뚜렷하지 않았다.



운동하는 암 경험자

[시가 만든 이미지]

암 생존자 26만여명 분석…운동량 유지·증가 땀 치매 위험 18%↓ 항암치료 환자서 연관성 더 뚜렷…“치료 후 신체활동 관리 중요”

이번 연구가 주목되는 건 단순히 암 환자가 운동을 많이 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암 진단이라는 큰 사건을 전후해 운동 습관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폈다는 점이다.

암 환자는 수술과 항암·방사선치료 과정에서 피로와 통증, 근력 저하 등을 겪으면서 활동량이 줄어들기 쉽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신체활동 감소가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암 치료 이후의 인지 기능 저하 역시 암 생존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문제로 꼽힌다.

이 중에서도 항암화학요법과 관련한 인지 기능 저하는 기억력과 주의력, 집중력, 정보처리

속도 등이 떨어지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이런 인지 변화에는 항암제뿐 아니라 암 자체와 염증반응, 피로, 수면장애, 우울·불안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운동은 이런 과정에 여러 경로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뇌 혈류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뇌 신경세포의 성장과 기능에 관여하는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고 대사 건강을 개선하는 것도 인지 기능 보호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

명이다.

연구팀은 앞선 연구에서도 국내 암 생존자 34만4천152명을 평균 5.8년 추적해 암 진단 후 신체 활동량이 많을수록 치매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한 바 있다.

당시 운동을 하지 않는 암 생존자와 비교했을 때 치매 위험은 신체활동 수준에 따라 11%, 15%, 21%씩 단계적으로 낮아졌다.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환자에게서도 같은 경향이 관찰됐다.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는 “이번 연구는 한 시점의 운동량이 아니라 암 진단 전후 개인의 운동량 변화 자체와 치매 위험의 관계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암 생존자의 장기적인 인지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신체 활동을 유지하도록 돕는 전략이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ADHD 치료제 처방 2년새 38% 급증…절반은 10대 이하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높여주는 약’ 등으로 잘못 알려진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의 처방량 급증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인 메틸페니데이트의 올해 상반기 처방량은 5천805만개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1% 증가했다.

2024년 상반기 처방량 4천213만개와 비교하면 37.8%나 늘었다.

올해 월별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을 보면 4월과 6월에는 각각 1천만개를 넘었다. 지난해 상반기

에는 5월이 922만개로 최다였다.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환자 수도 전반적으로 올해가 작년을 웃돌았다. 올해 6월 이 약을 처방받은 환자는 22만5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3만5천명 많았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처방 환자와 처방량 모두 19세 이하가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올해 상반기 19세 이하 처방량은 2천881만개였다. 특히 19세 이하 남성 처방량이 2천90만개로, 같은 연령대 여성 처방량 791만개보다 훨씬 많았다.

19세 이하 남성의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은

올 상반기 5천805만개 처방 19세 이하 남성 증가세 두드러져 식약처 “공부 잘하는 약 없어” 온라인 불법판매 1천733건 적발

2024년 상반기 1천578만개, 2025년 상반기 1천873만개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다.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 증가세는 다른 의료용 마약류와 비교하면 더 두드러진다.

올해 상반기 진통제, 항불안제, 최면진정제 처방량은 작년 상반기 대비 각각 0.4~4.5% 증가했고 식욕억제제, 진해제는 처방량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정부는 처방량이 증가하는 메틸페니데이트의 오남용 예방,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동영상을 활용한 홍보에 나섰다.

배우 서영희와 김태영이 출연한 영상은 메틸페니데이트가 영양제가 아니며 공부를 잘하게 해주는 약은 없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며, 관련 질환이 없는 사람이 섭취하면 두통, 불면, 환각, 망상성 사고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5월과 8월 특별 점검으로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 1천733건을 적발했다”며 “처방 없이 온라인에서 약을 구매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약을 복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각 나라별 언어를 대칭, 관리하는 차별화된 홈케어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페어팩스,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버지니아와 남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10/12 ~ 10/16 → 전화 예약 필수!

Centreville (Main Office)

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

Annandale (사랑방)

4324 Evergreen LN, #D (2FL)
Annandale, VA 22003

Annandale (V)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Gaithersburg (MD)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최만순의 약이 되는 K-푸드 가을 연안의 은빛 바늘, 학꽂치

가을이 깊어지면 연안의 물빛부터 달라진다. 한낮의 열기가 가라앉고 아침저녁 바람이 서늘해질 무렵, 남쪽 바다에 은빛 물고기 떼가 모습을 드러낸다. 가늘고 긴 몸통에 아래턱이 학의 부리처럼 길게 뻗은 학꽂치다.

◇ 조선 선비들이 기록한 ‘바늘 물고기’

흔히 학꽂치라고 부르지만, 국명은 학공치이며, 표준어로는 두 이름이 모두 인정된다. 아래턱이 학의 주둥이처럼 길게 나와 붙은 이름으로, 이름이 비슷한 공치와는 분류학적 거리가 있는 물고기다. 지방에 따라 공미리, 공치로도 불린다. 몸길이는 30~40cm까지 자란다. 우리나라 전 해역에 살지만 주로 남해안과 동해 남부에서 잡혀 부산 등 경상도 지역에서 즐겨 먹고, 겨울이면 동해 남부에 무리 지어 나타나 낚시꾼들이 몰린다.

옛사람들도 이 물고기를 가까이 두고 살폈다. 정약전은 1814년 ‘자산어보’에서 학꽂치를 침어(針魚)라 하고 속명을 공치어(孔峙魚)로 적었다. 흑산도에서 관찰한 이 물고기에 대해 아래 부리는 침처럼 가늘고 빛깔은 희면서 푸른 기운이 돌며, 맛이 달고 산뜻하고, 8~9월에 물가로 왔다가 물러간다고 기록했다. 지금 연안에 학꽂치 떼가 드는 시기와 거의 겹친다.

다른 어보에도 흔적이 남아 있다. 김려가 전해 유배 시절 쓴 ‘우해이어보’는 토박이들이 이 물고기를 곤치(昆雌)라 부르고, 새 부리 같은 주둥이가 있으며 회로 먹으면 아주 좋다고 적었다. 1820년 서유구의 ‘난호어목지’는 중국식 이름인 침어로 쓰고 한글로 ‘공지’라 달았다. 이름이 이만큼 여럿이라는 것은 그만큼 여러 바닷가 마을의 밥상에 올랐다는 뜻이다.

학꽂치를 잡는 방법에는 이 물고기의 습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1871년 이유원의 ‘임하필기’는 입의 바늘이 몸길이의 절반에 가깝고, 밤이면 물 위로 떠올라 노닐기 때문에 강촌 사람들이 작은 배에 송진 불을 밝혀 그물로 잡는다고 기록했다. 불빛을 쫓아 수면 가까이 모이는 성질을 알고, 물고기가 스스로 올라오는 때를 기다린 것이다.

바늘 같은 아래턱에는 이야기도 붙어 있다. 중국에서는 학꽂치를 강공어(姜公魚)라고도 부르는데, 주나라 강태공이 학꽂치 아래턱의 곧은 뼈를 낚싯바늘 삼아 낚시했다는 데서 나온 이름이다.

◇ 담백한 살, 밥상에서 몸의 균형을 거든다

약선에서는 학꽂치를 맛이 달고 성질이 평하거나 약간 서늘한 식재료로 분류한다. 비(脾)와 신(腎)으로 들어가 음(陰)을 기르고 기운을 돕는다고 보며, 일부 본초 기록은 양음익기(養陰益氣)의 효능을 언급한다. 그렇다고 학꽂치를 약처럼



학꽂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홈페이지 캡처]

대할 일은 없다. 음식의 묽은 평소 밥상에서 몸의 균형을 조금씩 거드는 데 있다.

현대 영양학의 눈으로 봐도 쓸모가 많다. 학꽂치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은 편인 생선으로, 무기질과 비타민B군 등을 함께 섭취할 수 있다. 단백질은 근육과 신체 조직을 유지하는 데 쓰이고, 비타민B12는 적혈구 생성과 신경계 기능에 관여한다. 여름내 땀으로 기운이 빠진 몸이 계절을 갈아탈 때, 담백한 생선에 채소와 곡류를 곁들인 식사는 부담 없이 영양을 채우는 방법이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더 먹느냐보다 무엇을 알맞게, 오래 먹느냐가 중요해진다. 기름과 열량을 줄이면서 필요한 영양을 챙기는 식사, 학꽂치 같은 생선은 그런 밥상에 잘 어울린다.

◇ 회부터 포까지, 한 마리로 차리는 가을 밥상

학꽂치를 가장 꾸밈없이 먹는 방법은 회다. 신선한 가을 학꽂치는 담백하고 부드러운 살맛을 그대로 드러낸다. 좋은 재료일수록 강한 양념으로 덮을 필요가 적다. 재료가 가진 본래의 맛을 지키는 일, 음식에서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기본이다.

회로 먹을 때는 신선도와 위생을 먼저 살펴야 한다. 학꽂치 아가미에는 아가멸레라 불리는 기생 등각류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손질할 때 머리와 아가미를 깨끗이 떼어내는 것이 좋다. 잔가시가 많아 어린이와 어르신에게 낼 때는 가시를 꼼꼼히 발라야 한다.

구이는 불 조절이 맛을 가른다. 소금을 살짝 뿌려 구우면 껍질은 노릇해지고 속살은 담백하게 익는다. 불이 세다고 좋고 약하다고 좋은 것도 아니어서, 재료에 맞는 불과 시간을 찾는 것이 요령

이다.

튀김은 가느다란 생선에 새 얼굴을 입힌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아이들도 잘 먹는다. 다만 열량이 높아 양과 횟수를 살펴야 한다.

새콤하게 간한 밥 위에 학꽂치 살을 얹으면 초밥이 된다. 일본에서는 사요리라 부르며 고급 초밥 재료로 친다. 생선과 곡식이 서로 모자란 부분을 채우는 모습은 동양철학에서 말하는 화(和)와 닮았다. 각자 제맛을 지키면서 한 입 안에서 어우러지는 것, 그것이 조화다.

우리 밥상도 그랬다. 밥은 밥대로, 생선은 생선대로, 나물은 나물대로 제맛을 지니고 한 상에 어울렸다. 어느 하나가 다른 맛을 누르지 않았다.

학꽂치탕은 가을 바다를 따뜻한 국물로 옮겨 놓는다. 무와 대파, 마늘, 숙갓을 함께 넣으면 생선의 담백함과 채소의 시원함이 어우러진다. 생강과 파를 곁들여 찌 먹어도 좋다. 약선에서 경계하는 것도 한 가지 음식을 만병통치처럼 여기는 태도다. 여러 식재료를 고루 먹으며 몸의 균형을 살피는 것이 음식 양생의 기본이다.

말려서 포로 만드는 것도 오래된 지혜다. 냉장고 가 없던 시절, 생선을 말리고 소금에 절이는 일은 제철의 풍요를 부족한 계절까지 이어주는 생활의 과학이었다. 냉동고가 있는 지금도 그 마음은 밥상에 남아 있다.

◇ 손자병법으로 풀어보는 학꽂치

손자병법 균형편(軍形篇)에는 “먼저 적이 나를 이길 수 없게 해 두고, 내가 적이 이길 수 있는 때를 기다린다(先爲不可勝以待敵之可勝)”는 대목이 있다.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겨 놓고 싸움을 구한다고도 했다. 힘으로 밀어붙이기 전에 지지 않



학꽂치 회

[농가살리기 홈페이지 캡처]

을 형세부터 갖추라는 가르침이다.

학꽂치가 가을에 가장 좋은 맛을 내는 것도 같은 이치로 읽힌다. 여름을 지나며 물과 먹이가 바뀌고 살이 차오를 때까지 바다는 서두르지 않는다. 식량을 미리 갈무리해 두는 일도 형(形)을 세우는 일이다. 전쟁에서 군량과 무기를 먼저 갖추듯, 제철 재료를 준비하고 저장해 두면 계절이 바뀌어도 밥상이 끊기지 않는다. 준비의 힘은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다가 위기 때 드러난다.

요즘 관심을 끄는 ‘저속노화’도 결국 이 이야기와 닿아 있다. 젊음을 한꺼번에 되찾으려 애쓰기보다 매일의 식사와 잠, 운동으로 몸이 천천히 건강한 형세를 갖추도록 돕는 일이다. 생선 한 마리로 노화가 멈추지는 않는다. 세월을 받아들이되 몸이 무너지지 않도록 날마다 조금씩 좋은 형세를 쌓는 것, 병이 난 뒤 허둥대기 전에 평소 몸을 지킬 준비를 해 두는 것이 먼저다.

가을 바다의 학꽂치를 보면 어머니의 밥상이 떠오른다. 바다에서 건져 올린 은빛 생선 한 마리를 가족이 둘러앉아 나눠 먹던 저녁, 살이 도톰한 한 점을 서로에게 먼저 밀어주던 마음, 남은 생선을 별에 넣어 다음 끼니를 준비하던 손길. 좋은 음식이 반드시 비싸고 귀한 음식이었던 적은 없다. 있는 것을 아끼고, 제철을 따르고, 자연이 준 것을 헛되이 하지 않는 마음이 그 밥상에 있었다.

이처럼 학꽂치는 수수한 생선이다. 그래도 회로는 바다의 본 맛을, 구이로는 불의 절제를, 튀김으로는 변화의 즐거움을 보여준다. 초밥에서는 곡식과 어울리고, 탕에서는 여러 재료와 함께 국물을 이루며, 말리면 시간을 건디는 저장 음식이 된다.

양생은 거창한 보약 한 첩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자연의 때를 알고 몸의 필요를 살피며 지나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가을 학꽂치 한 마리에는 바다의 은빛과 함께 때를 기다린 시간, 어부의 땀, 어머니의 손맛, 오래 건강하게 살고자 했던 옛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

최만순 음식 칼럼니스트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MC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학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타운에서 3분, 실버스프링 롯데 위튼 센터(H-mart)에서 10분 거리

센터빌 / 캔틀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롯데/한아름(H-mart)과 캔틀리 롯데에서 각각 5분거리

진료 과목

- 척추질환
- 좌골신경통
- 오십견
- 관절염
- 요통
- 소아과
- 부인과
- 생리불순
- 생리통
- 입덧
- 두통
- 위장질환
- 면역질환
- 한약처방 조제
- 불임치료
- 중풍
- 안면 신경마비
- 비염
- 알러지 질환
- 수술 및 사고 후 통증
- 노인성 변비
- 질환성 비만
- 추나 요법
- 전기침 요법
- 부항 및 운동 처치 요법
- 테이핑 요법
- 한국산 수제 우황청심환

문의·예약 703.642.6066

웹사이트 hanilacu.com

중의학 박사 연태호 원장

- 상해중의약대학 본과 및 박사 졸업
- 상해 서광의원 정형외과 4년 연수
- 한국 한일한의원 부원장 역임
- 중국 국가급 명의 석씨상과 사사

교통사고 보험

- CareFirst
- United Healthcare
- Anthem
- Aetna
- Humana
- Medicare Advantage Plan
- Worker's Compensation Program
- Veterans Affairs

※ 보험 플랜에 따라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100년을 이어오는 신실함

한일한의원

7345 Mcwhorter Pl. Suite 101, Annandale, VA 22003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소셜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틀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30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
료
과
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7023 Little River Tnpk., #409, Annandale, VA 22003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10월

구

인

광

고

귀하의 성공을 돕는 미디어 중앙

미디어 중앙
THE KOREA TODAY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숲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옵니다.”

구인

**스파에서
바디 필링하실
여자 직원 구함**

유 경험자,
무 경험자도 환영
(트레이닝)

Stafford, VA

(540)368-9699

메디케어(Medicare) 전문가 Paul Kim(수봉)

“복잡한 메디케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65세 (1961년생) 신규 가입부터 플랜 변경까지,
메디케어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 나에게 꼭 맞는 파트 C(우대 플랜)와 파트 D(처방약 플랜)는 무엇일까?
- 정부 보조 혜택(수수로 면제 등)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 수많은 플랜 중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상황에 딱 맞춘 최적의 선택을 찾아드립니다.

체크 리스트

1. 올해 65세가 되어 메디케어 카드를 처음 받으시는 분
2. 현재 가진 플랜의 치료, 안경, 약 보조 혜택을 더 키우고 싶은 분
3. 다른 주에서 이사 오셨거나 처방약 변경이 필요한 분

“알기 쉬운 메디케어,
무료로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상담: 703-223-6961 (편하게 전화 주세요)
* Medicare Advantage, Prescription Drug Plan, 정부 보조 프로그램 상담 가능
* 개인 상황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매

**Korean BBQ
& Hot Pot**
게이더스버그, MD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sf 규모
저렴한 렌트
매매가격 Only
\$215,000

최근에 새로 지어서
리모델링 비용절감

240-988-6868

HYUNS HOMECARE
Senior Services

**현스 홈케어와
함께 하실 분을
찾습니다.**

- 간호사 (RN, LPN)
- Full or Part Time 가능
- 재택근무

703-507-2492
hyunshomecare@gmail.com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8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571-239-6054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WBS 사무직으로 함께
일하실 책임감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경험자 우대,
체계적인 교육과
업계 최고대우 보장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hr@worldbankcard.net

한국신사복전문점 젠틀맨

목폴라	콤비	점퍼
반코트	와이셔츠	남방
양복	바지	티셔츠
벨트	양말	넥타이

취급 품목 양복/콤비/점퍼/와이셔츠/티셔츠/신사바지
넥타이/벨트(가족)/양말

**한국신사복
알베르토 세리니**

571-481-1020
7720 Royston St.
Annandale, VA 22003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 Chantilly, VA 지역
- ◎ 이중언어 필수
- ◎ 근무시간 조정 가능(플타임)
-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디어 중앙
THE KOREA TODAY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미디어 중앙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미디어 중앙으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미디어 중앙 생활안내 Classified

미디어 중앙 2026년 10월 7일 수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계좌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메릴랜드

구인/사무/직원모집

콜롬비아 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운전 기사(옴니 거주 환영)
-주방 보조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험자 가능
▶703-598-3316 / 703-862-5395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 경험자
이메일: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에서 직원
-운전기사 / 간호사(RN) / 간병인
-건강 보험 및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프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443-288-6677

기타 구인

엘리콧시티 Cafe June 직원모집
-샌드위치 스태프 2명
-주말 근무 가능자
-경력/초보자 모두 가능
443-386-0515

엘리콧시티 펫 그루밍 센터에서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443-759-9798

볼티모어 쇼핑센터 빨래방에서 식구가 맡아서 운영하실분
213-220-8873

픽업 스토어 4개 가지고 있습니다.
빨래 깨끗이 빨아줄 공장을 찾고 있으며, A급 스फट맨 필요하신분 연락 바랍니다.
703-966-9072

싱글/타운/방 렌트

교통 편리한 콜롬비아 지역 타운하우스 큰방 1, 욕실 1, 방세 놓습니다.
잠만 주무실분 환영 (간단한 조리가능), 유틸리티 별도
410-585-7336 (문자 요망)

저먼타운 싱글홈 위크 아웃 베이스먼트 렌트 방2, 부엌, 응접실, 욕실, 출입문 별도
202-985-9191 (문자나 메세지 요망)

베데스다 반지하 큰방 렌트합니다.
부엌, 화장실, 취사 가능
240-543-1601 (메세지 요망)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곳에 위치한 (495 & 95 만나는 곳)
싱글하우스 방렌트 또는 하숙 가능

301-385-3535
게이더스버그 타운하우스 2층 방하나 & 베이스먼트 렌트합니다.
434-532-5548 (문자요망)

엘리콧시티 롯데에서 10분거리 타운홈 2층 렌트, 가구 완비, 인터넷, 교통 편리
직장인 구함
443-631-7866

중고 매매/기타

05년 오트세이 투어링 매매 \$2,490
한 주인, 뉴 타이어, 상태 매우 양호
703-646-0808 / 919-571-0089

세탁 장비 및 카운터 가구, 창고 대방출
-보일러, 콤파레샤, 베콤
-셔츠 프레스, 상코사 더블백
-자켓 프레스, 팬츠 프레스 등등
-카운터 가구, 피팅룸, 실장, 기타 소품
Paul Kim : 301-404-0701

케어 피플에서 간병사 교육합니다
기간: 10/12 - 10/16 전화예약 필수
▶571-297-4747 (VA)
▶301-966-7000 (MD)

부동산 매매

MD Suitland 같은 단지 내의 2 bedroom 콘도 3채 매매. Total 매매가 46만불.
현찰 매매 (자금 확인 필요) 한달 순수익 \$4300. Cash 자금 있으신분으로 Serious inquiries only.
문의 703-244-3453

사업체 매매

코인 런드리 사업체 매매
실버스프링, MD
202-494-3653

1. DC-델리, 조지타운 대학근처, 단독건물 AP 19만
2. VA-한국분식점, 사평물내 매니저운영중 AP 50만
3. VA-월남식당, 대로변, 높은매상 AP 48만
4. MD-KBBQ 식당, 좋은시설, 대로변 쇼핑센터 AP 35만
5. MD-치킨전문점, 좋은상권, 초보자운영 가능, 초대형 쇼핑센터 AP 40만
▶이덕주 (703) 303-8003

1. 메릴랜드 리커스토어 4백만불 건물 포함, 매출 연 2백2십만불, 인벤토리 40만불
2. 볼티모어 뷰티 서플라이 10만불, 인벤토리 20만불
3. 볼티모어 뷰티 서플라이 5000 sf, 가격 15만불, 고정정식
4. 커피샵/디저트 사업 시작하실분 단독건물/건물구입 1백8십만불
5. 서자장 하실분 5백5만불/2백만불/8백9십만불
▶703-928-5990

1. 애난데일 실내골프장, 최적의 장소 3천 & 6천 sf. Safeway 건너편, 높은 천정
2. 애난데일 식당. Buyer가 자리 찾고 있음. 2nd Generation 비즈니스 원함, 타이 음식점 예정

3. Falls Church VA 치킨 프랜차이즈 식당 \$20만
4. Alexandria VA 포토맥야드 근처 Bakery or K BBQ 들어갈수 있는 자리, 리스 space 5,700sf, 1층
5. Alexandria VA 포토맥야드 태권도장한 자리, 2,700sf
메가 부동산 703-534-4989

1. DC 상업용빌딩 w/컨비니언 스토어 \$1.75M 코너랏, 단독 빌딩 유니언마켓 근처, 계속 개발중인 지역, 강추!
2. 애난데일 236 대로변, 2층 25,000sf 리스 스페이스, Bakery, 식당, Beauty store, 실내골프장, Great parking
3. 급구! 애난데일에 위치한 식당을 찾는 바이어 대기중
메가 부동산 703-534-4989

1. 스시집 매매 워싱턴 DC, 주6일 오픈, 월 순수익 2만5천 렌트 \$5,200 (Com Tax 포함)
2. 일본식당 매매 MD 그린벨트 근처, 월 순수익 3만5천, 주매상 3만 (문의) 240-381-8263 Hahn
703-929-6689 로라박

1. 치킨 프랜차이즈, 주매상 4만, Fairfax
2. 타이식당, 주매상 \$1만8천, 대로변, 쿠팡킹, 저렴한 렌트, Fairfax co, VA
3. 치킨식당, 주매상 \$2만3천, 렌트 \$4,500, VA
4. 일식당, 주매상 \$2만, \$16만
5. 애난데일 식당, '포차'로 운영하기 최적의 장소
▶DJ Lee 703-303-8003

버지니아

구인/사무/직원모집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에서 직원 모집
-매니저
-자격: 회계사 자격증 / 관련 분야 3년 이상
-문의 및 이력서: hr@yicompany.com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학생 및 유/무 경험자 환영
-\$20/h 컴퓨터, 영어 가능자
-취업 영주권 스폰서 가능
Resume: annandalecpa22@gmail.com
문의: 571-459-8109

롯데 플라자마켓 스텔링 사무직 직원을 구함
-모집분야: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
-지원자격: 컴퓨터 사용 가능한분 (유경험자 우대)
-이력서접수: fdm1@lotteplaza.com
▶문의: 703-817-6312

K MARKET 직원 모집
-모집분야: 업소 관리 (경력자 우대)
-지원 지역: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 가능한분
-지원 방법: Customer Service로 문의 이력서 이메일 제출
-접수: accounting@kmarketusa.com
▶문의: 703-507-2020

스텔링 롯데 마트안에 위치한 금산인삼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분을 구합니다.
-판매하실 여자 직원

-주 40시간, 주말 가능 하신분
문의: 929-400-3934

퍼스트 홈케어에서 직원 모집
-간병인 / 코디네이터
▶문의: 571-549-6789

미디어 중앙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 모집
-모집분야: 편집/광고 디자인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포토샵, 프리미어
문의: 703-281-9660
이력서: kdclass2018@gmail.com

프렌즈 데이 케어에서 직원 모집
-본사 스프링필드: 한국 간호사
-리치몬드, 뉴포트지점: 사무 직원, 코디네이터, 방문 간호사
문의: 571-424-7527/8

치과 조무사, 리셉셔니스트 직원 모집
-월, 화, 목, 금 8시-5시 근무
-무경험자 시간당 \$20
▶이력서: naturadent@gmail.com

현스 홈케어 서비스 간병사 모집
-월 2회 간병사 교육 및 Certification 발급
-CNA 교육 지원 (시험응시료 1회 지원, 취득시 추가 혜택 제공)
-주급 지급 (매주 금요일)
-안정적인 근무배정 및 경력관리 지원
▶703-507-2492

첼트리 러브랜드 홈헬스 사무직 직원 구함
-경력 무관
-이중언어 필수, 풀타임 가능자
-건강보험, 401k, 유급 휴가 제공
▶문의: 703-657-0944
▶이력서 이메일: account1@loveandhomehealth.com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WBS에서 사무직으로 함께 일하실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경험자 우대, 체계적인 교육과 업계 최고 대우 보장
문의: hr@worldbankcard.net

탐여행사 미동부 투어가이드 사무직원 구함
-센터빌 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info@toptravelusa.com
▶703-543-2322

애난데일 홈케어 매니저/지점장 구함
매니저 유경험자 우대
영어/한국어 이중언어 우대
문의: 571-389-4415
이력서: hr@yicompany.com

버지니아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합니다. 이중언어자 환영
▶703-259-5617

노인 의학 클리닉에서 남자 간호 보조원 (MA) 채용합니다.
▶240-232-5989

BridgeOne Insurance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경험자, 무경험자도 가능
VA & MD

▶703-598-3316 / 703-862-5395

애난데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원 구함
-사무 보조원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실에서 일한 경력 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jsih.esq@gmail.com

리셉셔니스트 (이중언어 필수)를 모집합니다
장소: Chantilly, VA 20151
시간: 조정가능 (풀타임)
급여: 인터뷰 후 조정가능
전화문의: 703-622-7737
Email: accounting@lbuniversal.com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thco.com
▶571-549-6789

김서규 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자나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
-오후 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Fairfax 풀/파트타임 직원 구함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프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식당/식품

애난데일 한식당에서 직원 구합니다.
-찬모 / 서버
-문의: 201-407-5840 (문자)
이메일: hojin.choi@annangol.com

SuperMax Warehouse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수산 및 야채 구매 보조 (트레이닝 가능)
-유통업계 사무직 (경력 불문, 최소의 이중언어 및 기본 컴퓨터 가능자)
-근무장소: 첼트리 VA
문의: 703-665-2162 (마이클 임)
Email: info@theglobalfood.com

애난데일 분식집 만두랑 김밥이랑 주방 쿡, 주방 헬퍼 구합니다.
김밥 싸실분, 파트타임/풀타임
703-625-7080 / 703-642-8668

애난데일 명품 제장에서 함께 일하실 웨이츄리스 & 웨이터 구합니다.
703-398-2226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시니어 데이케어 시설 긴급 매매

센터빌 한인타운 중심가,
교통 편리한 곳에 위치한
어덜트 데이케어 시설을
인수하실 분을 찾습니다.

• 약 6,000 sq. ft. 규모
• 최대 100명 수용 가능
• 5년 장기 렌트 계약
• 시니어 데이케어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 및 장비 완비
• 즉시 운영 가능한 최적의 환경, 별도의 투자 없이 바로 시작 가능

문의: 571-278-8811

오래된 전문가를 믿으세요!

미셀 3D 눈썹

대박 \$95 눈썹·아이라인 (1회)

• 오래된 눈썹 색수정 • 유지기간 2-3년
• 진짜 아른가요? NO!! • 20년 경력

여자눈썹
• 아이라인 (2회)
• 남자눈썹 (2회)
• 입술 (2회)
• MTS (재생) (2회)
• 고주파 물광 스킨케어
• 앞머리, 뒷머리 가르마 타투로 채워드리
• 몸에 나는 거대한 점 빼드립니다.

571-432-7108

6Days OPEN / 월-토요일 오픈 / 당일 예약 가능

(설악가든 근처, 가까빠가 마용실 안에 위치)
4542 John Marr Dr. #A, Annandale, VA 22003

직원 구함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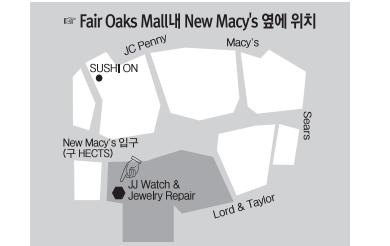
이력서 보내실 곳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JJ Watch & Jewelry
www.jjwatchusa.com

페어옥스 몰 안에 있는
JJ Watch & Jewelry Shop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하시면서
기술 배우실 분
환영합니다.



703.691.1993

미디어 중앙 생활안내 Classified

C10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수요일 미디어 중앙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폴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ji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 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파트타임 모두 가능
▶571-991-4172

세탁/얼터레이션

미래형 세탁 체인 사업에서 함께 성장하실분
모집
-마케팅, 세일즈 매니저
-테일러, 캐쉬어
-웨딩드레스 전문가 우대
*Pony Fabricare, Fairfax VA
문의 : 301-404-0701

픽업 스토어 4개 가지고 있습니다.
빨래 깨끗이 빨아줄 공장을 찾고 있으며,
A급 스파넷 필요하신분 연락바랍니다.
703-966-9072

기타 구인

InCourage Martial Arts에서 태권도 사범
님을 모집합니다.
Email 주소 :
tony@incouragemartialarts.com
문의 : 571-243-7027(text 가능)

스파에서 바디 필링 하실분 구함
-여성분, 유경험자, 무경험자도 환영
(트레이닝 가능)
-스테포드, VA
문의 : 540-368-9699

애견 그루밍 선생님 구함
알렉산드리아, 레스톤 지역
givingtree.alison@gmail.com
▶문의 : 571-660-8182

B3 플러밍에서 함께 일하실분 구함
메케닉 & 준 메케닉
▶703-220-1400

No.1 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싱글/타운홈 렌트

맥클린 단독 주택 아래층 only 렌트 \$2,300
방1, 화1, 거실, 랭리 HS, 워크아웃
▶703-642-6342

애난데일에 위치한 저택 렌트 \$7,995
(알링턴 2마일, DC 7 마일)
전체 3층, 8 베드룸과 8 베스. 전체 8000 sf.

크레딧 없는 분도 가능.
1층과 2층 (방5)만 쓰실분 또는 아래층 (방3)
만 쓰실분도 가능
문의 703-244-3453

애난데일 싱글홈 렌트 \$6,000
방5, 화4.5, 4800sf, 모든 가구 + TV 포함
예촌 근처, 주재원 대환영 !!!
▶703-919-0472

센터빌 타운홈 렌트 \$3,200
방3, 화3.5, 2 Car Garage, 엔드 유닛,
나무 마루, 넓고 밝은 리빙룸, 탁트인 부엌과
리빙룸,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펜스가 있는 뒷마당, Visitor 파킹 다수,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비엔나 타운홈 \$3,100
방3, 화2, 전체 마루, 옥튼 하이스쿨, Mosaic
EI, RT 123/29/50/88
▶571-239-6054 (문자)

패어팩스 코스코 옆 타운 홈 \$4,000
방3, 화2.55, 차고2, 2019년,
RT 66/50/286/29
▶571-239-6054 (문자)

콘도 렌트

애난데일 콘도 렌트 \$2,400
방3, 화2
▶703-642-6342

3년된 패어팩스 콘도 \$2,100
방1, 화1, Garage, (구) Hmart 건너편
▶703-642-6342

패어팩스 콘도 렌트 \$2,100
방2, 화1, Den, No Carpet, 물, 가스, 전기 포
함, 교통 편리, 밝고 조용함
▶703-919-0472

애난데일 H 마트 옆 콘도 렌트, \$2,400
방3, 화2, 유포(전기별도) 9월1일 입주 가능
703-350-1986

애난데일 콘도 렌트 \$1,700
방1, 화장실1, 넓고 밝은 리빙룸, Updated
condo 남향, 밝고 깨끗.
발코니, 셰이프웨이 건너편. 교통 편리.
물값, 가스 값 포함
▶703-477-3114

센터빌 콘도 렌트 \$2,200
방2, 화장실2, 뒷층에 loft 있음
(방 또는 사무실 가능), 나무 마루, 넓고 탁트
인 고급스러운 부엌, 9 ft Ceiling, 발코니, Gate
Community, 전용 파킹 2개, 밝고 예쁜 콘도
저렴한 렌트비, 1,310 sf
▶703-477-3114

방 렌트

애난데일 설악가든 근처 방 렌트
조용한 동네 싱글홈, 1층 원룸 스타일
출입문 별도, 화. 샤워. 냉장고, 세탁기
간단 취사 가능, 금연자, 즉시 입주
(571)243-6295

애난데일 싱글홈 방하나 또는 방 2개 렌트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주방, 샤워룸,
조지메이슨 학생 환영
571-229-7124 (문자요망)

방 렌트합니다.
패어팩스 비엔나 전철역 걸어서 5분거리
직장인 남자 환영
571-530-7322

비엔나 타이슨 지역 화장실 딸린 방 렌트
새로 수리한 반지하, 남자분 환영
703-395-4380 (메세지 남겨 주세요)

웨스트 스프링필드 고교 옆 지하전체 렌트
워크아웃, 남싱글룸 환영
202-256-4981 (문자)

애난데일 H 마트 근처 콘도 방1, 화1 렌트
가구 완비, 간단 취사, 유포, 엘리베이터
703-989-0103

애난데일 예촌 근처 남자 룸메이트 구합니다.
571-230-2244

애난데일 예촌 앞 타운홈 큰 방 1, 작은 방 1 렌
트. 가구 완비, 취사 가능, 직장인/학생 환영
703-622-2033

애난데일 시루 앞 방하나 렌트
가구 완비, 취사 가능, 직장인 여성분 환영
703-973-8123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에버그린 오피스 사무실 렌트
월 \$500
문의 : 703-677-1889

워싱턴 DC 중심가 가게 임대 \$4,000/월
그로서리, 컨비니언스 스토어, 커피숍
문의 : 703-231-5572

애난데일 오피스 전체 렌트 \$1,700
나무 마루, Newer Windows, 새 페인트, 계
단 없는 1층 위치, 새로 단장한 화장실, 넓은
주차장, 교통 편리
▶703-477-3114

센터빌 던킨 뒤 환한 오피스 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3개, 화1, 오픈 스페
이스, 파킹다수, RT29/66/28/286
▶571-239-6054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콘도 매매 \$345,000
애난데일 콘도 방2, 화2, 굿 파킹
▶703-642-6342

웃브리지 타운홈 매매 \$469,000
방3, 화2+1, 업그레이드 많이 된 집
▶703-919-0472

1) 우드브릿지 타운홈 \$569,900
방3, 화3.5, 2 Car garage, 새 단장, 밝고 환
한 집, 2011년, Bay window, 숲이 보이는
넓은 텍, Parking lot 6대, 새 카펫, 새 페인
트, 업데이트된 부엌 (새 냉장고, 새 스토브,
새 전자렌지) 넓고 고급스러운 Granite,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2) 우드브릿지 콘도 \$229,900
예쁘게 업데이트한 콘도, 새 페인트, 새 가

펫, 세탁기 및 건조기 집안에 있음. 밝고 환한
콘도, 계단 없는 뒷뜰 출입 가능, 리모델링한
화장실, 리모델링한 부엌 (SS Appliances,
Granite Countertop), 저렴한 콘도 Fee
▶703-813-8949

1) 폴스 처치 싱글홈 \$1,710,000
방5, 화4.5, 3902sf, 2011년 레노베이션,
맥클린 하이 학군
2) 알링턴 싱글홈 \$1,999,000
방5, 화6, 4275sf, 2026년 신축 건물,
RT-50에서 가까운 지역
▶703-486-6082

1) 센터빌 장종교회 근처 싱글 \$1,050,000
방3, 화3, 5 에이커 전원 주택, 최신 수영장
2) 레스톤 싱글홈 \$855,000
방7, 화3.5, 워크아웃 부엌, 차고 2
타운센터/메트로 근처
3) 헌돈 럭셔리 타운 \$850,000
방3, 화3.5, 차고 3
▶703-489-6926

1) 맥클린 Rotonda 콘도 \$499,000
방2, 화2, 남향, 하드 우드, 주방/욕실 업데
이트, 삼성 스마트 가전, 게이트 커뮤니티, 실
내, 야외 수영장, 사우나, 헬스장, 테니스, 피
클볼, 타이슨스 코너 인근
스프링힐, 쿠퍼미들, 랭리 하이스쿨 학군
2) 첼틀리 하이 타운홈 \$819,000
방4, 화3.5, 차고 2, 밝고 넓은 앤드유닛, 오
븐 플로어 플랜, 하드 우드 바닥, 그레나이트
주방, 데크 & 울타리 있는 뒷마당, 풍부한 자
연 채광과 실용적이고 넓은 공간, 편리하고
쾌적한 주택, 넓은 3층 범프아웃 구조, 지하
층 4번째 침실 & 풀욕실
3) 애쉬번 럭셔리 타운 \$919,000
방4, 화3.5, 차고2, 최고 학군, 2015년,
3660sqft, RT50/66/267, 멀레스공향,
교통요지
4) 애난데일 싱글 \$720,000
애난데일 중심, 방3, 화2, 0.23acre, 넓
은 마당/창고, 교통 편리, 생활 편의 시
설, 495/95/Backlick Rd
5) 게인스빌 콘도 \$425,000
방3, 화2.5, 차고 1, 1788sf, 집 전체 LVT 마
루, I-66, 루트 29 & 15 접근 편리, 쇼핑, 식
당 가까운 좋은 위치
▶571-239-6054

1) 패어팩스 싱글홈 \$1,500,000
방6, 화5, 차고2, 2018년, 로빈슨 HS, 좋은
위치에 전체적으로 수리된 고급집
2) 패어팩스 싱글홈 \$1,400,000
방4, 화3+1, 차고 2, 2000년 집, 전체적으
로 아주 잘 가꾸어진 집
3) 비엔나 싱글홈 \$1,100,000
방3, 화3+1, 차고 2, 1999년 집, 타운하우
스 가격으로 싱글 하우스 구입
4) 센터빌 타운홈 \$873,000
방3, 화3+2, 차고 2, 2022년 지어진 집,
거의 새 집 같은 이쁜 집
▶703-899-8999

1) 알렉산드리아 콘도 \$425,000
올드 타운, 아주 좋은 위치, 방1, 화1, 4층
로얄층, 편리한 layout
2) 브리스토 타운홈 \$679,000
Victory Lakes 단지 내에 있는 관리 아주 잘
된 타운하우스, 교통/생활 편리
▶703-625-9909

클립튼 콘도 \$379,000
호수를 품고 있는 멋진 단지, 방2, 화2, 완
전히 업데이트된 집, 새 페인트, 새 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고급 SS Appliances, 새
Washer & Dryer, 넓은 거실, 계단 없는 1층,
H마트 1분 거리
▶703-813-8949

1) 센터빌 타운홈 \$595,000
방3, 화3.5, 2 assigned parking
지붕, 부엌 (2024), 욕실 (2026), HVAC 등
업그레이드 된
2) 클립튼 싱글홈 \$1,120,000
방4, 화3.5, 집 전체 수리 많이 된 집
3) 비엔나 콘도 \$339,000
방1, 화1 + 덴, 비엔나 중심 위치, 전체 마루,
넓은 텍, 가스/물 포함한 저렴한 관리비
▶703-919-0472

1) 패어팩스 타운홈 \$850,000 2005년
방4, 화3.5, 차고2, 집 전체 마루, 교통과 학
군이 우수하며 높은 부동산 가치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핵심 입지 조건, 코스코 부근
2) 센터빌 타운홈 \$530,000
방3, 화3.5, 1250sf
▶703-231-5572

사업체 매매

스시가게 매매 합니다.
-첼틀리 한국마켓 내, 좋은 가격
(856) 283-5148

1) Alexandria 상업용 빌딩
\$2million / 4,500sf / 2 Tenants
비어 & 와인 / 컨비니언 & 픽업
2) DC 상업용 단독 빌딩
\$160만 / 4,700sf. 1/2 acre lot
Beer & Wine W/ 컨비니언 스토어
▶703-642-6342

1) Shabu 식당 \$12만
Fairfax 카운티, 잘 꾸며져 있음
Good Parking!
2) 카페 + 델리 2,500sf \$14만
알링턴 카운티 변화가. 일식당 바꿀수있는
최적의 장소! 근처 경쟁이 없는 지역!
3) 애난데일 식당 3,000sf
4) 알링턴 3,000sf
컨비니언 스토어 w/빌딩!
\$85만! Best Price!
5) Fairfax 한식/분식 하기 좋은 식당!
\$18만
▶703-642-6342

패어팩스 20년된 미장원 \$7만
w/Great Parking, 주인 은퇴함
▶703-642-6342

1) DC 유니온마켓 근처, 3천sf
단독빌딩! 컨비니언 운영중
근처 재개발중인 투자 가치
탁월한 지역 \$1.7million
2) 타이슨스 근처 1,800sf Lease Space
월 \$4,800, I-5 zoning
3) 애난데일 리테일 Lease
Space 1천-6천sf, 236 선상
(703) 642-6342

1) 주매상 \$2만5천, 주5일
NW, DC, 2,500sf, 렌트 \$5천/월
2) 분춘치킨, 주매상 \$3만5천
3천sf, 대형 쇼핑 센터, 편리한 파킹
3) 애난데일 한식당, 4천sf
\$15만, 굿 파킹
4) DC 바/식당, 바이어 대기중, 연락바람!
DJ Lee (703) 303-8003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앗간/반찬/잔치음식 전문점

**낙원떡집**

케이터링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Coming Soon

각종 떡, 단체 도시락, 김밥 주문 받습니다.

김밥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각종 반찬 만들어 드립니다.

참기를 짜드립니다. (기계 있음)

•각종 행사 •백일/돌잔치/생일 음식

•잔치 음식 •K-Food & Hibachi Food

•반찬 전문

"매장 식사 가능"

703-505-7766
7412 Stream Walk Ln.
Manassas, VA 20109 (Oh! Market 안에 위치)

 **PARADISE CATERING**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자?

“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junk8282.com

 **571-723-0446**

미디어 중앙
THE KOREA TODAY

직원 모집

미디어중앙에서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	•편집/광고 디자인 0명 디자인: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포토샵, 프리미어
자격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 소개서
근무 혜택	회사 내규에 따름

이력서: kdclass2018@gmail.com

 **PARADISE CATERING**

미디어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미디어 중앙 2026년 10월 7일 수요일

구인/ 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1

1. DC-델리, 조지타운 대학근처, 단독건물 AP 19만 2. VA-한국분식점, 샴푸물내 매니저 운영중 AP 50만 3. VA-월남식당, 대로변, 높은 매상AP48만 4. MD-KBBQ 식당, 좋은시설, 대로변 쇼핑센터 AP 35만 5. MD- 치킨전문점, 좋은상권, 초보자 운영 가능, 초대형 쇼핑센터 AP 40만 ▶이덕주 (703)303-8003 페어팩스 일식집 \$50만 1년 순수익 \$20만, SBA융자가능 ▶703-496-4989 성업중인 픽업스토어 매매 스타포드 \$6만불 픽업 스토어건물 매매 \$42만불 Tel: 703-231-5673 **미장원 급매 5일 영업, 월 순수익 \$6,000, 알링턴 VA, 좋은동네, 발전 가능성 많음 (문의) 240-381-8263 Hahn 703-929-6689 로라박 1. 애난데일 실내골프장, 최적의 장소 3천 & 6천 sf. Safeway 건너편, 높은 천정 2. 애난데일 식당. Buyer가 자리 찾고 있음. 2nd Generation 비즈니스 원함, 타이음식점 예정 3. Falls Church VA 치킨 프랜차이즈 식당 \$20만 4. Alexandria VA 포토맥야드 근처 Bakery or K BBQ 들어갈수 있는 자리 리스스페이스 5,700sf, 1층 5. Alexandria VA 포토맥야드 태권도장한 자리, 2,700sf 메가 부동산 703-534-4989 1. DC 상업용빌딩 w/ 컨비니언 스토어 \$1.75M 코너랏, 단독 빌딩 유니언 마켓 근처, 계속 개발중인 지역으로 감추! 2. 애난데일 236 대로변, 2층 25,000sf 리스스페이스, Bakery, 식당, Beauty store, 실내 골프장, Great parking 3. 급구! 애난데일에 위치한 식당을 찾는 바이어 대기중 메가 부동산 703-534-4989 1. 스시집 매매 워싱턴 DC, 6일 오픈, 월 순수익 2만5천 렌트 \$5,200 (Com Tax 포함) 2. 일본 식당 매매 MD 그린벨트 근처, 월 순수익 3만 5천, 주매상 3만 (문의) 240-381-8263 Hahn 703-929-6689 로라 박 성업중인 세탁소 (Dry Cleaners) 매매 - 최적의 입지: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 쇼핑 센터내 위치 - 30년 안정 운영, 많은 단골 고객층 확보 - 5마일내 경쟁업체 무, 무한한 성장 잠재력 - 완벽한 설비 시설 - 매매가 협상 가능, 방문 환영 - Manassas, VA (문의) 한국어 : 703-678-9790 영어 : 703-499-2466 버지니아 프레드릭스버그 이발소매매 -고정 단골손님 많음 - 월세 \$2500, 월 순수익 \$6천이상 - PT 일하실분 구함 703-907-9541 (문자 주세요) 1. 관티코 VA, 군 부대안 3층 상업용 빌딩 5,300 sf \$1.1M 2. 페어팩스 VA, 4층 빌딩 13,000 sf 임대 완료 \$4.5M 3. 알렉산드리아 VA 커머셜 Lease Space 6,500 sf, 1층 대로변, 포토맥야드 근처, 편리하고 넉넉한 주차, DC에서 10분 4. 타이슨스 VA, 커머셜 Lease Space, 1,800sf ▶ 메가 703-534-4989 성업중인 픽업 스토어 매매 \$7만 옷수선 전문, 저렴한 렌트비 (\$3,000/월) 스태포드 문의 : 703-231-5572 1. 치킨 프랜차이즈, 주매상 4만, Fairfax 2. 타이식당, 주매상 \$1만8천, 대로변, 굿파킹, 저렴한렌트, Fairfax co, VA 3. 치킨 식당, 주매상 \$2만3천, 렌트 \$4,500, VA 4. 일식당, 주매상 \$2만, \$16만	5. 애난데일 식당, '포차'로 운영하기 최적의 장소 ▶DJ Lee 703-303-8003 1. 애난데일 한국식당 4,000sf, \$20만 2. Tysons 창고 1,800sf \$4,800/Month 3. Alexandria 태권도장 나간자리, 2,750sf ▶문미애 703-534-4989 중고 매매 / 기타 05년 오딧세이 투어링 매매 \$2,490 한 주인, 뉴 타이어, 상태 매우 양호 703-646-0808 / 919-571-0089 세탁 장비 및 카운터 가구, 창고 대방출 -보일러, 콤팩트샤, 베큘 - 셔츠 프레스, 상고샤 더블 벅 - 자켓 프레스, 팬츠 프레스 등등 - 카운터 가구, 피팅룸, 실 장, 기타 소품 Paul Kim : 301-404-0701 60차성경통독 집회 - 일시: 10/12일(월) 오전 8시 ~ 오후 8시 - 장소: 에즈라 선교 센터 6150 Finchingfield Rd. Warrenton, VA - 문의: 540-347-1188 케어 피플에서 간병사 교육합니다 기간: 10/12-10/16 전화예약 필수 ▶571-297-4747 (VA) ▶301-966-7000 (MD) 대입컨설팅/레슨 SAT, ACT, SSAT, 토플지도, 대입컨설팅 703-499-3393 피아노 레슨 합니다. 유치부, 초/중/고 및 입시반, 성인 취미반, 특수 아동, 30년 경력 Zoom & In-person 703-772-2987 (문자) 건축/페인트/마루 JGL 건설 회사 하청없이 25년 이상 숙련된 본사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571-213-8678 JJL CONTRATOR INC. 지붕 고민/돈 걱정 그만 하세요. ▶703-835-0945 형제 건축&지붕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민고 말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703-928-6255 애버샤인 건축 키친, 부엌, 베이스먼트 리모델링 및 페디오, 펜스, 덱, 기타 집수리, VA/DC 라이선스 보유, 오랜 경력, 보험 가입 ▶703-994-2943 TOP 건축 콜롬비아 MD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In & Out), 덱 메인테넌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 워시, 핸드맨 서비스 ▶문의: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 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 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덱, 그외모든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 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 wani6811 ▶571-331-6811 K & 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TSP/연금/401K/IRA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703-688-2645 바른길보험조정사 주택부터 상가 비즈니스까지, 보험약관이 보장하는 정당한 보상을 한인 공인 보험조정사가 함께 찾아드립니다. ▶240-659-9286 Paul Kim(수봉) 종합보험 메디케어·생명·연금·자동차·집·사업체·Worker's Com 보험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설계합니다! ▶703-223-6961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메디케어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703-961-8811 생명보험, 은퇴연금, 비즈니스세금 절감 플랜 까지 전문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세요. 703-939-2737 정문기 메디케어보험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 신청 도와드립니다. ▶703-598-3316 온니화재 사업체, 자동차, 집, 의료, 생명 보험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보험 ▶703-862-5395 조은혜종합보험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신청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로리문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703-895-7648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 / 가스 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 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 가정용/상업용 ▶ 문의: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 장비, 케리 아웃 장비 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 장치 ** 연중 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 쿨러, 워터 히터 ▶443-280-1873 정스냉동 (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 쿨러, 아이스머신, 덕트 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웨딩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수아 미용 타투 두피염색 (가르마, 정수리 전체), 눈썹, 아이러인, 입술, 속눈썹, 헤어 생장술, MTS (미백 주름 개선 세럼), 스킨 케어 ▶443-722-5925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 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결혼식 장소 및 예산 선정 ▶703-642-2247 골든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백금, K14, K18, 셋팅 전문, 결혼예물, 돌반지, 각종 보석 감정 수리 * 엘리컷시티 롯데플라자내 ▶410-480-2477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AS 전담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모든 샘플 가지고 방문 ▶703-600-9031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 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 상업용 한번 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 스탬핑,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브러쉬 파워 폴싱소, 응급 수해 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B3 플러밍에서 함께 일하실분 구함 - 메케닉 & 준 메케닉 ▶703-220-1400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홈 플러밍 수도꼭지 교체, 싱크/디스포저, 워터 히터/물 새는것, 하수막힘/변기교체, 셉 펌프 교체 571-594-4080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 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 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 안밖 물새는 것 전문 수리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정크 8282 각종 탈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선택, 확실한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 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 무료견적, 합리적 가격 ▶703-298-1919 HD 현대통운 미동부 최대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는 ICC 인가업체, 100% 자체 보험, 확실한세관 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 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H.P.C 집수리 센터 집 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등 ▶571-594-4080 JJ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 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유리 JK 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	---	--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1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703-591-0009 / 703-537-9899

냉 · 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이 기계 디자인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AWARDED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 헬스케어 / 미용 타투

JK 유리 & Window

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단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무료견적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Door to Door Service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VA/DC/MD → NY 정기운행
· 쓰레기 처리가능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저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 귀국 이사 전문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 자체보험으로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미디어 중앙

궁금한 기사
미디어 중앙안에
있습니다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돌 반지 팔찌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플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용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용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인테리어 / 한의원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웨딩 플래너

●웨딩드레스 & 텍시도 대여

●웨딩플라워 데코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Realty Inc.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경희한국한의원

경희대학교

3인의 한의사가 진료하는 원인치료 전문 한의원

워싱턴 DC 일등 대한민국 한의원

“침, 한약 잘하는 한의원”

240.880.8817 / 301.709.7707

JGL Construction Inc.

JGL 건설회사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 전기)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 안밖 물세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아기 돌반지,팔찌

●보석 세공,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EVERSHINE Construction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HOME REMODELING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15년 이상의 경험 ●보험가입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703.994.2943

Ray Kim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한국산 Smart Curtain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blinds.com / bbgbb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텝 보험 보유

571-594-4080

형제건축·지붕

H BROTHERS CONSTRUCTION, INC.

가정용

상업용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드립니다.

부엌

화장실

지하실

703-928-6255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집·가게 수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작은 일도 열심히 해드립니다.

VA 703-340-5858

MD 443-980-5858

Homes Plumbing

홈스 플러밍 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 수도꼭지 교체

◆ 싱크 / 디스포저

◆ 워터히터 / 물세는것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씽크펌프 교체

24 hours 7days Service

571.594.4080

VA A License / Insurance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미디어중앙 THE KOREA TODAY

궁금한 기사 미디어 중앙안에 있습니다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블라인드 / 틈트

100% 한국산 프리미엄 자재

토탈 블랙아웃 Total Blackout LLC

미국 동부 공식 브랜치

블라인드·커튼·스마트틴트 (PDLC)

무료 견적 방문 상담

703-600-9031 Young Lee

6305 Meadow Glade Ln., Centreville, VA 20121

totalblackout4u@gmail.com

공장직영

고품질 시공

합리적 가격!

스마트틴트 (PDLC)

스위치 ON/OFF

OFF (프라이버시)

ON (투명)

블라인드

커튼

차바라 (폴딩 도어)

자동차 틈트

www.worldblind.co.kr

Vsion Inc. 미국 동부 공식 브랜치

스마트틴트 (PDLC) 전문

www.visioninc.co.kr

낱말퀴즈 & 스도쿠

가로열쇠

(1)형제자매의 자식 (2)말과 비슷한데 몸은 작고 앞머리의 긴 털이 없으며 귀가 길다 (4)어린 아이에게 등에 업히려는 뜻으로 내는 소리 (6)바다에서 조수가 빠져나가 해수면이 가장 낮아진 상태. ↔찬물 때 (7)제대로 된 자격이나 실력이 없이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 (8)꽃과 함께 떨어진 어린 감. 밤새도록 거센 바람이 분 다음날이면 마당에 ~가 여기저기 굴러다니곤 했다 (10)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 (12)동네 안을 이리저리 통하는 좁은 길 (14)물고기 잡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16)맑고 푸른 하늘 (17)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18)가짜 돈. 훔치려고 파넬 땅에 묻힌 돈다발이 알고 보니 ~였다 (20)겨울에 길거리에서 구워 파는 이것은 빠질 수 없는 국민 간식이죠 (22)잎이 넓은 나무의 종류. 떡갈나무, 뽕나무, 상수리나무, 오동나무 따위 (25)내연 기관에서, 실린더 안의 피스톤이 한 번 움직였을 때 밀어내는 기체의 부피 (27)총에서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잡아당기면 총알이 발사되죠 (28)같은 나라 또는 같은 민족의 사람 (29)밤에 음식을 먹음

세로열쇠

(1)자잘하고 모양이 동글동글한 돌 (2)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풀이나 나뭇잎 따위 (3)주전자의 부리와 같이 그릇 한쪽에 바깥쪽으로 내민 부리 (4)왕명으로 특별한 사명을 띠고 파견된 벼슬을 높여 이르는 말. 춘향이 고개를 들어 보니 이 도령이 ~가 되어 앉아 있었다 (5)승려가 등에 지고 다니는 자루 모양의 큰 주머니. 배낭의 변한말이죠 (6)일반 역과는 달리 역무원이 없고 정차만 하는 역 (8)매우 고맙게 여기는 모양 (9)수채 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 (11)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 고사에서 위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함. □록□□ (13)나무를 다루어서 물건을 만드는 일 (14)고기잡이 배 (15)일반 국민이 생활하는 데 겪는 어려움 (19)허파 속에 최대한도로 공기를 빨아들여 다시 배출하는 공기의 양 (21)몹시 인색한 사람 (23)오물이 물에 씻겨 내려가게 처리하는 방식 (24)실내의 온도를 낮춰 차게 하는 일 (25)곡식의 이삭이 나오려고 대가 불룩해지는 현상. 할아버지 묘의 봉분에는 달짝지근하게 ~ 오른 빨기가 많았다 (26)기체가 들어가듯그렇게 거품처럼 된 것

스도쿠

		4			7	5			
2			7	3	6		8		
			6		1			3	9
		3	5				6	7	2
			8					5	
6	9			5	4	7			
	6					4	2	1	
				2					
5				7	8	6	4		



자료제공=월드북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3	6	4	9	8	7	1	2	5
7	9	5	1	3	2	4	8	6
8	1	2	4	5	9	3	6	7
1	8	3	7	4	5	2	6	9
4	5	9	6	3	2	9	8	7
2	7	9	8	6	1	5	3	4
9	3	7	1	2	4	6	5	8
5	4	8	9	6	3	7	1	2
6	2	1	5	7	8	9	4	3

성공 비즈니스...
시작이 중요합니다!



미디어 중앙
THE KOREA TODAY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6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의원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